

---

저자 (Authors)	윤경진
출처 (Source)	<a href="#">신라문화 46</a> , 2015.08, 207-242 (36 pages) <a href="#">THE JOURNAL OF THE RESEARCH INSTITUTE FOR SILLA CULTURE 46</a> , 2015.08, 207-242 (36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a> The Center of Research for Silla Culture Dongguk University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520769">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520769</a>
APA Style	윤경진 (2015). 신라 神武-文聖王代の 정치 변동과 三韓一統意識의 출현. 신라문화, 46, 207-242.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06 15:03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신라 神武-文聖王代の 정치 변동과 三韓一統意識의 출현

윤 경 진\*

<目 次>

I. 머리 말	III. 文聖王代 무열왕계의 복권과 三韓一統意識의 출현
II. 神武王代 전후 무열왕계의 동향	1. 金陽의 활동과 무열왕계의 복권
1. 神武王의 즉위와 金陽	2. 聖住寺碑의 건립과 三韓一統意識의 출현
2. 金昕(大昕)의 활동과 행적	IV. 맺 음 말

[국문초록] 이 연구는 신라 신무-문성왕대 무열왕계가 복권되면서 체제 통합의 이념으로서 三韓一統意識이 출현하는 양상을 검토한 것이다. 이것은 앞서 흥덕왕이 金庾信을 興武大王으로 追封하여 통합의 상징으로 활용하려 한 것에서 '통일'전쟁의 경험을 정치 이념으로 활용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됨을 반영한다.

이러한 변화의 계기를 제공한 것은 무열왕의 후손인 金陽이었다. 그는 흥덕왕 사후 벌어진 왕위쟁탈전에서 均貞을 지원하였고, 그 아들 祐徵이 淸海鎮에 들어가자 군사를 모아 합류하였다. 그는 청해진의 군대를 이끌고 왕경을 공격하여 민애왕을 제거하고 신무왕을 옹립하였다. 이는 무열왕계가 정치적으로 복권되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반면 金陽의 從父兄 金昕은 헌덕왕 때 발탁되어 민애왕 정권의 핵심이 되었다. 그는 청해진의 군대에 맞선 大昕과 동일인으로 파악되며, 패전 후 은거하다가 金式의 모반에 연루되어 처형되었다. 하지만 그의 전기에서는 사망 일시를 앞당김으로써 이를 은폐하였다.

金陽은 문성왕대의 정국을 주도하며 정치적 입지를 굳혔다. 문성왕의 妃父가 되었고 연이은 모반을 제압하면서 정권 안정에 기여하였다. 이것은 무열왕의 공업으로서 '一統三韓'이 환기되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는 金陽 사망 후 金有신의 예에 따라 賻儀하고 무열왕릉 옆에 매장하도록 한 것에서 드러난다.

문성왕대 건립된 「聖住寺碑」에서 삼한일통의식의 출현을 확인할 수 있다. 성주사는 金仁

\* 경상대학교 사학과 교수

問의 受封地에 김흔의 발원으로 창건되었으며 문성왕이 寺名을 내려주었다. 김흔이 사망한 후 魏昕(金陽)이 사업을 이어받아 불전 완공과 불상 조성, 탑의 건립 등을 마무리하였다. 이 비에는 절의 연원을 백제 법왕 때의 사적으로 연결하고 당시를 ‘三韓鼎足’으로 인식하는 한편, 신라를 辰韓으로 지칭하는 등 삼한일통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영문초록] Examined in this study is how the Notion of the “Three Hans becoming One(三韓一統意識)” was formed as an ideology to unite the Shilla dynasty during the reigns of Shilla kings such as Shinmu-wang and Munseong-wang. Before, King Heungdeok-wang posthumously entitled Kim Yu-shin(金庾信) as “Heungmu Daewang(興武大王),” in order to suggest him to the public as the symbol of dynastic unity. We can see that the Shilla government was learning how to utilize all its experiences from the unification war in political maneuvers.

The person who provided an opportunity to take this situation to the next level was Kim Yang(金陽), who was the descendant of past king Muyeol-wang. He was one of the individuals who were instrumental in Shinmun-wang’s enthronement, and was one of the leading figures of the government during king Munseong-wang’s reign. With his rise to power, the descendants of Munseong-wang were politically reinstated, and Muyeol-wang’s idea of “Unifying all three kingdoms(一統三韓)” was once again remembered and discussed. After he died, he received respects from the country just like Kim Yu-shin did, and he was buried at the side of Muyeol-wang’s mausoleum.

The construction of the Seongju-sa(聖住寺) temple, which proceeded during the reign of King Munseong-wang, was initiated at the request of Kim Heun who was also the descendant of king Muyeol-wang, and was completed with the support of Kim Yang. In an epigraph which documented the situation, the history of the temple was recorded as a one which went back to the Baekje days, when three kingdoms were coexisting(‘三韓鼎足,’ according to its description), while Shilla was referred to as “Jinhan(辰韓).” We can see the aforementioned notion was gaining more and more ground at the time.

[주제어] 三韓一統意識(the Notion of the “Three Hans becoming One”), 金陽(Kim Yang), 辰韓(Jinhan), 聖住寺(Seongju-sa temple), 神武王(Shinmu-wang), 文聖王(Munseong-wang)

## I. 머리말

신라가 고구려·백제에 대한 동질의식을 바탕으로 통합을 달성했다는 三韓一統意識은 신라의 ‘통일’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평가하는 준거가 되고 있다.<sup>1)</sup> ‘통일’전쟁의 의의에 비판적인 경우에도 신문왕대 이후 정치 이념으로 채용되었다고 이해함으로써 삼한일통의식이 7세기에 수립되었다고 보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sup>2)</sup>

그러나 근래 삼한일통의식을 신라 중대의 정치 이념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그간 신라 중대 삼한일통의식을 설명하는 핵심 자료들에 대한 비판적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다. 7세기에 건립된 것으로 이해되었던 「청주운천동사적비」는 나말려초의 것임이 확인되었고,<sup>3)</sup> 태종의 공업을 ‘一統三韓’으로 설명한 『三國史記』의 太宗 諡號 논변 기사는 하대 초기에 생성된 「金庾信行錄」에서 채용한 것으로서 논변은 실재하지 않았음도 지적되었다.<sup>4)</sup> 이외에 ‘일통삼한’의 이념을 담은 문헌 자료는 대개 후대의 진승에서 채록된 것으로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존하는 신라 금석문을 검토할 때 삼한일통의식은 9세기 자료에서 비로소 보이고 있어 9세기의 정치 이념으로 그 실체에 접근해야 한다는 점도 피력되었다.<sup>5)</sup> 물론 제한된 금석문 자료만으로 삼한일통의식의 출현 시점을 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하대 초기에 찬술된 「김유신행록」에도 온전한 형태의 삼한일통의식은 보이지 않는다.<sup>6)</sup> 더구나 「김유신행록」은 개인 저술이고 신비적 내용이 많아 신

- 1) 이호영, 「신라 삼국통일에 관한 재검토: 통일의를 중심으로」, 『史學志』 15, 1981.  
盧泰敦, 「三韓에 대한 認識의 變遷」, 『韓國史研究』 38, 1982.  
邊太燮, 「三國統一의 民族史的 意味: ‘一統三韓’意識과 관련하여」, 『新羅文化』 2, 1985.  
李昊榮, 「新羅의 統一意識과 ‘一統三韓’ 意識의 成長」, 『東洋學』 26, 1996.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9.  
노태돈, 「7세기 전쟁의 성격을 둘러싼 논의」, 『韓國史研究』 154, 2011.
- 2) 金瑛河, 「新羅의 百濟統合戰爭과 體制變化」, 『韓國古代史研究』 16, 1999.  
김병남, 「신라의 삼국통일 의식과 그 실제」, 『韓國思想과文化』 2, 2004.  
김영하, 「一統三韓의 실상과 의식」, 『韓國古代史研究』 59, 2010.  
김영하, 「신라 삼국통일론의 궤적과 그 함의」, 『韓國史研究』 153, 2011.
- 3) 윤경진, 「「청주운천동사적비」의 건립 시기에 대한 재검토」, 『史林』 45, 2013①.
- 4) 윤경진, 「新羅 中代 太宗(武烈王) 諡號의 追上과 재해석」, 『韓國史學報』 53, 2013②.
- 5) 윤경진, 「신라 통일기 금석문에 나타난 天下觀과 歷史意識: 三韓一統意識의 성립 시기 고찰」, 『史林』 49, 2014①.
- 6) 『삼국사기』 태종 시호 논변 기사에는 무열왕의 공업을 ‘一統三韓’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되하기 어렵거니와, 그 내용이 국가적인 정치 이념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더불어 이를 필요로 하는 계기가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삼한일통의식은 ‘통일’전쟁이나 그 결과에 대한 당대의 인식이 아니라 9세기의 상황에서 선행한 역사를 새롭게 인식한 결과로 볼 여지가 생긴다. 이러한 변화의 단서로 金憲昌의 난과 金庾信의 興武大王 追封이 주목되었다.<sup>7)</sup> 헌덕왕대 熊川州를 거점으로 발생한 김헌창의 난은 신라 중대 이후 처음으로 지방에서 발생한 반란이었다. 당시 반란과 백제 유민과의 관련성은 확인이 곤란하지만, 새로운 國號까지 반포한 반란에 대해 신라 정부는 체제 분열의 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平壤 도읍을 목표로 한 梵文의 난을 통해 더욱 뚜렷해졌다.

헌덕왕의 뒤를 이은 흥덕왕은 새로 軍鎮을 설치하여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한편, 巡行을 통해 민심 수습에도 노력하였다. 신분에 따른 服色과 車騎, 屋舍 등의 규정을 정비한 것도 결국 체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가 김유신을 흥무대왕으로 추봉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조치였다.

‘신하’인 김유신을 대왕으로 추봉하는 예외적인 조치는 그의 상징성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초점은 그를 ‘통일’전쟁의 주역으로 부각시키는 데 있었다. 무열왕의 공업이 결국 김유신을 얻어 이루어졌다는 태종 시호 논변 기사나 나라를 鎮護하던 김유신의 혼령이 후손의 억울한 죽음을 이유로 떠나려 한 것을 味鄒王이 만류했다는 미추왕릉 전승, 그리고 김유신이 문무왕과 함께 守成의 보배를 전해 주었다는 萬波息笛 설화는 모두 국왕에 관한 것이지만 실제 초점은 김유신에 있다. 흥무대왕 추봉은 바로 통합의 아이콘으로서 김유신을 부각시킴으로써 체제 통합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김헌창의 난이나 김유신 추봉은 체제 통합을 위한 이념의 필요성을 환기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삼한일통의식의 수립을 전망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삼한일통의식을 직접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삼한일통의식이 분명히 자

---

원전에 가까운 『삼국유사』 기록에는 ‘一統三國’으로 되어 있다. 이로 보아 현상적인 삼국의 통합을 제시하더라도 그 당위성을 ‘三韓’이라는 역사적 동질성에서 찾는 단계로 나아가지는 못했다고 생각된다. 다만 성덕왕대 唐의 詔書에 신라를 三韓으로 칭하는 사례가 보이고, 역시 「김유신행록」에서 채록되었다고 추정되는 萬波息笛 설화에도 신라를 三韓으로 지칭하고 있다. 여기에도 후대의 윤색이 더해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하대에 들어 신라가 삼한의 정체성과 ‘一統三國’의 공업을 아우르며 三韓一統意識으로 수렴해 나가게 되는 방향성은 설정할 수 있다.

7) 윤경진, 「신라 興德王代 체제 정비와 金庾信 追封: 三韓一統意識 성립의 일 배경」 『史林』 52, 2015.

리잡기 위해서는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었다.

무엇보다 ‘一統三韓’은 중대 왕권에 대한 평가와 맞물린 것이고, 중대의 출발이 되는 무열왕과 문무왕의 공업으로 설정되는 것이었다.<sup>8)</sup> 하대는 무열왕계가 단절되고 내물왕의 후손인 원성왕에서 새롭게 왕계가 이어졌다. 따라서 무열왕과 문무왕의 권위는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통합의 상징으로서 김유신이 부각되는 것도 결국 무열왕계의 위축이라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원성왕계는 ‘통일’전쟁의 공업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를 매개로 무열왕계의 권위를 부각시킬 이유가 없었다. 더구나 무열왕계인 김헌창이 반란을 일으킨 만큼, 이후 무열왕계의 입지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삼한일통의식을 체제 이념으로 수립한다는 것은 하대 왕실에서 무열왕계까지 포괄하는 정치적 필요성이 새롭게 제기될 때 비로소 그 형태를 갖추게 될 것이다.

본고는 김유신의 흥무대왕 추봉 이후 삼한일통의식이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되는 직접적인 배경을 무열왕계의 복권과 이들을 아우르는 체제 통합의 모색이라는 관점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신무-문성왕대 金陽의 활동이다.

무열왕의 9대손인 김양은 흥덕왕 사후 벌어진 悌隆과 均貞의 왕위 쟁탈전에서 균정을 지원하였고, 균정이 피살된 후 그 아들 祐徵이 淸海鎭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민애왕을 축출하고 왕위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신무왕의 아들인 문성왕이 즉위한 후에는 딸을 妃로 들였고 侍中과 兵部丞을 겸하며 정국을 주도하였다.<sup>9)</sup> 그의 정치적 부상은 곧 국왕의 정치적 파트너로서 무열왕계의 복권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선조인 무열왕의 공업이 환기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한다.

8) 이 점에서 해공왕 때 고구려와 백제를 평정한 것을 명분으로 무열왕과 문무왕을 不遷之主로 삼은 것은 삼한일통의식의 출현을 전망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조치는 해공왕의 불안한 왕권을 보강하는 측면이 컸다. 삼한일통의식은 단순히 삼국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해 ‘三韓’이라는 역사적 동질성을 전제하는 것이 중요한데, 중대에는 이러한 요소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해공왕이 피살되고 중대 왕계가 단절되면서 무열왕과 문무왕의 권위도 퇴색하였는데, 애장왕대 이들이 五廟에서 탈락하고 別廟로 이동한 것은 그 반영이다. 따라서 해공왕대의 조치만으로 삼한일통의식의 출현을 말하기는 어렵다.

9) 金陽의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 논고가 참고된다.

尹炳熙, 「新羅下代 均貞系의 王位繼承과 金陽」 『歷史學報』 96, 1982.

李明植, 「新羅 下代 金周元系의 정치적 입장」 『大丘史學』 26, 1984.

李喜寬, 「聖住寺와 金陽 : 聖住寺의 經濟的 基盤에 대한 一檢討」 『聖住寺와 朗慧』, 서경문화사, 2001.

이에 2장에서는 먼저 신무왕대를 전후한 시기 무열왕계의 정치적 동향을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는 그동안 별개의 인물로 알려져 있던 김양의 從父兄 金昕이 문성왕대 반란 주모자의 일원으로 나오는 大昕과 동일인임을 확인함으로써 왕위계승분쟁 과정에서 무열왕계가 분기하는 양상을 확인하는 작업도 포함된다.

이어 3장에서는 문성왕대 김양의 활동을 통해 무열왕계가 복권되고 통합의 이념으로서 삼한일통의식이 출현하는 상황을 살펴볼 것이다. 이 때 삼한일통의식의 단초가 처음 확인되는 「聖住寺碑」가 바로 김양 및 김흔과 관련되어 있음에 주목하여 비문 내용을 좀더 정치하게 분석해 볼 것이다.

## II. 神武王代 전후 무열왕계의 동향

### 1. 神武王의 즉위와 金陽

무열왕계의 왕위 계승이 단절되고 내물왕의 후손인 선덕왕과 원성왕이 즉위한 뒤 원성왕의 후손이 왕위를 이어가게 되었다. 하지만 국왕의 입지는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했다. 애장왕의 叔父 彦昇(헌덕왕)이 왕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하면서 왕위를 둘러싼 싸움이 계속되었다.<sup>10)</sup>

헌덕왕에 이어 동생 흥덕왕이 즉위했으나 그가 후사 없이 사망하면서 다시 왕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다. 흥덕왕 사후 堂弟인 均貞과 堂弟 憲貞의 아들 悌隆이 모두 왕이 되고자 하면서 충돌하였다. 이 때 侍中 金明(흥덕왕의 동생 忠恭

10) 신라 하대 왕위계승 분쟁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주요 논고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李基白, 「上大等考」 『歷史學報』 19, 1962;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73.

吳星, 「新羅 元聖王系の 王位交替」 『全海宗華甲紀念論叢』, 一潮閣, 1979.

李基東, 「新羅下代の 王位繼承과 政治過程」 『歷史學報』 85, 1980.

尹炳熙, 앞의 글, 1982.

姜聲媛, 「新羅下代 反逆의 歷史的 性格」 『韓國史研究』 43, 1983.

李明植, 앞의 글, 1984.

文暉鉉, 「神武王의 등장과 金昕」 『趙恒來停年紀念論叢』, 아세아문화사, 1992; 『增補新羅史研究』, 慶北大學校 出版部, 2000.

金昌謙, 「新羅下代 왕위찬탈형 반역에 대한 일고찰」 『韓國上古史學報』 17, 1994; 『新羅下代 王位繼承 研究』, 景仁文化社, 2003.

權永五, 「新羅下代 왕위계승분쟁과 閔哀王」 『韓國古代史研究』 19, 2000; 『新羅下代 政治史 研究』, 혜안, 2011.

의 아들) 등은 제룡의 편에 섰고, 균정의 아들인 祐徵은 조카 禮徵 및 金陽과 더불어 제룡을 받들어 내전을 벌였다. 그러나 김양은 화살에 맞아 부상을 입었고, 우징 등은 도주하였다. 결국 균정은 피살되고 제룡이 왕위에 올랐다(희강왕).

헌덕왕 4년(812) 시중이 된<sup>11)</sup> 균정은 김헌창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도 공을 세웠고,<sup>12)</sup> 흥덕왕 10년(835)에는 上大等이 되었다.<sup>13)</sup> 아들 우징 또한 김헌창의 난을 진압하는 데 참여하였고, 흥덕왕 3년(828)에는 시중이 되었다가<sup>14)</sup> 동왕 6년(831)에 면직되었으나<sup>15)</sup> 동왕 9년(834)에 다시 시중이 되었다.<sup>16)</sup> 흥덕왕 10년 균정이 상대등이 되자 우징은 해직을 청하였고, 그를 대신해서 시중이 된 인물이 김명이다.<sup>17)</sup>

한편 헌정은 『삼국사기』에는 헌덕왕 11년(819) 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70세가 되기 전에 几杖을 내려준 기록이 보일 뿐이다.<sup>18)</sup> 그런데 헌덕왕 5년(813) 건립된 「斷俗寺神行禪師碑」에는 비문의 찬술자로 國相 兵部令 金獻貞이 보인다.<sup>19)</sup> 憲貞과 獻貞은 동일인으로 파악되는 바, 헌덕왕 초에 그가 병부령으로 재임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헌정이 은퇴한 후 그 아들 제룡은 정계에서 특별한 위상을 찾을 수 없다.

헌덕왕 4년(812) 시중이 되었던 균정이 20여 년만인 흥덕왕 10년(835)에 상대등이 된 것은 흥덕왕 이후의 후계 구도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sup>20)</sup> 흥덕왕 사후 균정이 먼저 積板宮에 들어갔고 그를 지원하던 김양이 궁궐을 공격하는 제룡 무리에게 “새 임금[新君]이 이곳에 있는데 너희들은 어찌 이와 같이 감히 兇逆하는

11) 『三國史記』 권10, 新羅本紀10 憲德王 4년, “春 以均貞爲侍中.”

12) 『三國史記』 권10, 新羅本紀10 憲德王 14년 3월, “伊滄均貞 逆滄雄元 大阿滄祐徵等掌三軍徂征 (중략) 均貞等與賊戰星山 滅之.”

13) 『三國史記』 권10, 新羅本紀10 興德王 10년 2월, “拜阿滄金均貞爲上大等 侍中祐徵以父均貞入相 表乞解職.”

균정은 김헌창의 난 당시 이미 이찬이었으므로 위의 阿滄은 伊滄의 오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14) 『三國史記』 권10, 新羅本紀10 興德王 3년 정월, “大阿滄金祐徵爲侍中.”

15) 『三國史記』 권10, 新羅本紀10 興德王 6년 정월, “侍中祐徵免 伊滄允芬爲侍中.”

16) 『三國史記』 권10, 新羅本紀10 興德王 9년 정월, “祐徵復爲侍中.”

17) 『三國史記』 권10, 新羅本紀10 興德王 10년 2월.

18) 『三國史記』 권10, 新羅本紀10 憲德王 4년, “春 以均貞爲侍中 以伊滄忠永年七十 賜几杖.”

19) 『譯註韓國古代金石文』 III, 斷俗寺神行禪師碑, “皇唐衛尉卿國相兵部令兼修城府令伊干金獻貞撰.”

20) 신라 하대에는 왕의 후사가 없을 경우 대개 上大等이 왕위를 계승하는 경향을 보인다(李基白, 앞의 글, 1973, pp. 122~123). 한편 상대등과 왕위계승의 상관성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金昌謙, 「上大等과 왕위계승」 『新羅下代 王位繼承 研究』, 景仁文化社, 2003 및 권영오, 「하대 왕위계승과 상대등」 『新羅下代 政治史 研究』, 혜안, 2011 참조.

가”<sup>21)</sup>라고 한 것도 당시 상황에서 균정이 실질적인 후계자 위치에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sup>22)</sup>

그럼에도 제룡이 균정과 경쟁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禮英의 長孫이었기 때문이다. 헌정이 건강 문제로 은퇴할 때 계장을 내려준 것을 보면 그가 70세가 되지는 않았어도 연로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헌정이 예영의 큰아들이며 왕위 쟁탈전 당시 제룡의 나이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흥덕왕 말엽 정계의 축이 인계계에서 예영계로 넘어올 때 헌정의 아들 제룡이 나름 정통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자신은 특별한 정치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한 발 앞서 있던 균정 부자를 누르고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金明과의 제휴가 결정적이었다. 김명은 흥덕왕의 동생인 忠恭의 아들이다. 헌덕왕에 이어 흥덕왕이 왕위를 계승하였고 흥덕왕에게 후사가 없었기에 흥덕왕 사후 동생 충공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충공의 행적과 관련하여 『삼국사기』 기록에 혼선이 보인다. 충공은 헌덕왕 9년(817) 伊滄으로 侍中이 되었으며,<sup>23)</sup> 헌덕왕 13년(821)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sup>24)</sup> 그런데 헌덕왕 14년(822) 김현창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角干 忠恭이 보이며,<sup>25)</sup> 곧이어 각간 충공의 딸을 맞이하여 太子妃로 삼은 기록도 보인다.<sup>26)</sup>

이와 관련해서는 동명이인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나,<sup>27)</sup> 같은 시기 최고 권력층에 동명이인이 포진하고 있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설사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개명을 통해 구분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면, 이 문제는 헌덕왕 13년 사망 기사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듯하다.<sup>28)</sup>

충공을 대신해 侍中이 된 永恭이 흥덕왕 2년에 은퇴한 것으로 볼 때,<sup>29)</sup> 영공의

21) 『三國史記』 권44, 列傳 4 金陽, “新君在此 爾等何敢兇逆如此.”

22) 仁謙系에서 禮英系의 憲貞과 제휴하고 均貞을 견제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권영오, 앞의 글, 2011, p. 153), 흥덕왕 말년에 균정이 상대등이 된 것과 균정이 먼저 板積宮에 들어가 新君 즉위를 선언한 것을 보면, 균정이 실제 후계자 위치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23) 『三國史記』 권10, 新羅本紀10 憲德王 9년 정월, “以伊滄金忠恭爲侍中.”

24) 『三國史記』 권10, 新羅本紀10 憲德王 13년 4월, “侍中金忠恭卒 伊滄永恭爲侍中.”

25) 『三國史記』 권10, 新羅本紀10 憲德王 14년 3월, “角干忠恭迺滄允膺 守蚊火關門.”

26) 『三國史記』 권10, 新羅本紀10 憲德王 14년 3월, “聘角干忠恭之女貞嬌 爲太子妃.”

27) 이기동, 앞의 글, 1980, p. 19 주 59) 참조.

28) 문경현은 이러한 논거에서 ‘卒’을 ‘退’나 ‘免’의 오기로 이해하였다(문경현, 앞의 글, 2000, p. 429).

시중 임명은 분명하다. 따라서 그가 시중이 되는 전제로 충공이 시중에서 물러난 것 또한 분명하다. 그리고 헌덕왕 14년 秀宗(홍덕왕)이 副君이 되는 것과 관련된 祿眞 열전의 기사에는 角干 忠恭이 上大等으로 인사를 담당했다는 내용이 보인다.<sup>30)</sup> 따라서 헌덕왕 13년 기사는 충공의 사망이 아니라 상대등으로 올라간 것을 잘못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수중은 헌덕왕 11년(819) 상대등이 되었다.<sup>31)</sup> 그리고 헌덕왕 14년에 부군이 되어 왕위계승자로 지명되었다.<sup>32)</sup> 이로 보아 헌덕왕 13년 수중이 후계자 지명을 앞두고 상대등에서 물러나고 대신 충공이 상대등이 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홍덕왕이 후사가 없었으므로 다음 왕위는 충공으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음 기사는 이러한 이해를 뒷받침한다.

興德大王께서 왕위를 이어받고 宣康太子께서 나라 일을 돌보니 사악한 것을 없애고 나라를 바로잡아 善을 즐기고 王家를 기뻐지게 하였다.<sup>33)</sup>

위에서 宣康太子는 忠恭을 가리킨다. 그는 아들 민애왕이 즉위한 후 선강대왕에 추봉되었는데, 이는 사망 때 받은 시호를 그대로 왕의 시호로 채용한 것이다.<sup>34)</sup> 충공이 태자로 지칭된 것은 그가 홍덕왕의 후계자로 지명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충공은 홍덕왕 사후 벌어진 왕위 쟁탈전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전에 사망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김명은 충공을 대신할 후계자로 지명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홍덕왕은 후계자를 확정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고, 仁謙系가 아닌 禮英系에서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게 되었다.

당시 충공이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김명의 나이도 20세에 불과해 그가 독자적인 세력을 꾸리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군정이 홍덕왕 말엽에 상대등이 되는 것도 충공 사후 김명을 후계자로 지명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일 것인데,

29) 『三國史記』 권10, 新羅本紀10 興德王 2년 8월, “侍中永恭退.”

30) 『三國史記』 권45, 列傳5 祿眞, “十四年 國王無嗣子 以母弟秀宗爲儲貳 入月池宮 時 忠恭 角干爲上大等 坐政事堂 注擬內外官.”

31) 『三國史記』 권10, 新羅本紀10 憲德王 11년 2월, “上大等金崇斌卒 伊滄金秀宗爲上大等.”

32) 『三國史記』 권10, 新羅本紀10 憲德王 14년 정월, “以母弟秀宗爲副君 入月池宮.”

33) 『譯註韓國古代金石文』 III, 鳳巖寺智證大師碑, “興德大王纂戎 宣康太子監撫 去邪豎國 樂善肥家.”

34) 이는 인검의 경우와 동일하다. 仁謙은 태자로 있을 때 사망하여 惠忠이라는 시호를 받았으며, 이후 惠忠太子로 불리다가 소성왕 즉위 후 惠忠大王으로 추봉되었다.

상대등 임명 당시 균정의 나이가 많았던 것에 비추어 김명의 나이가 너무 적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명은 후계자로 지명되지는 못했더라도 20대의 나이에 侍中이 되는 데서 드러나듯이 그에게는 충공 이래의 기반이 있었다. 이에 그의 가담은 제룡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그가 제룡을 지원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제룡의 妃 文穆夫人이 葛文王 忠恭의 딸이라는 점이다.<sup>35)</sup> 이로 보아 충공은 희강왕 즉위 전에 죽었고 희강왕은 즉위 후 그를 갈문왕으로 추봉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희강왕과 김명은 매부 처남 사이가 된다. 이 점이 제룡 편에 가담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그가 다음 왕위에 대한 보증을 받았을 가능성이 지적된다. 충공 사후 균정이 정계의 실질적인 핵심이 되었고, 우징 또한 시중을 역임한 만큼 김명이 이들을 지지하더라도 후계자로서 입지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반면 제룡은 아버지 헌정 사후 정계의 기반이 약했던 만큼, 그가 즉위한 후 김명이 실권을 쥘 수 있는 여지가 컸다. 그가 희강왕 즉위 후 곧바로 상대등이 된 것은 후계자로서 입지를 확인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sup>36)</sup>

그런데 희강왕이 즉위한 지 3년 만에 김명은 侍中 利弘과 난을 일으켜 왕위를 빼앗았다. 희강왕의 즉위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상대등까지 되었던 그가 얼마 되지 않아 난을 일으킨 것은 결국 왕위 계승에 대해 희강왕의 행보가 달라졌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 희강왕에게는 아들 啓明이 있었고, 후일 그의 아들 膺廉이 현안왕의 뒤를 이어 즉위하게 된다(경문왕). 기록에는 드러나지 않으나 희강왕은 자신의 아들 계명을 후계자로 삼으려 하였고, 이에 반발한 김명이 무력으로 왕위를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김명의 가담으로 인검계의 지원을 업은 제룡은 균정과 우징이 먼저 궁궐에 들어왔음에도 이를 힘으로 밀어낼 수 있었다. 처음 궁궐에 들어왔을 때 균정과 우징이 김양의 族兵을 동원하여 宿衛에 나선 것은 이들이 군사적으로 밀렸던

35) 『三國史記』 권10, 新羅本紀10 僖康王, “妃文穆夫人 葛文王忠恭之女.”

36) 悌隆은 金憲昌의 난을 진압하는 데 참여한 것 외에는 뚜렷한 행적이 보이지 않아 스스로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으며, 사실상 金明이 왕위에 오르기 위한 발판으로 제룡을 이용했다고 해석되기도 한다(윤병희, 앞의 글, 1982, pp. 66~67; 권영오, 앞의 글, 2011, pp. 151~152). 그러나 흥덕왕 사망 당시 왕위 계승권은 이미 均貞에게 넘어가 있었고, 김명이 시중에 올랐지만 나이가 20세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제룡 쪽에서 왕위 계승을 조건으로 그를 끌어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것을 보여준다. 예영계가 분열한 상황에서 인검계의 지원이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온 것이다.

한편 균정계에 가담하여 族兵을 동원한 김양은 무열왕의 9세손으로, 선덕왕과의 경쟁에서 밀려났던 周元의 증손이다. 祖 宗基가 蘇判, 父 貞茹가 波珍滄으로서 여전히 중앙 정계에 참여하며 대대로 將相을 배출하였다. 그 위상이 점차 낮아지기는 했으나 족병을 동원할 수 있을 만큼 군사적 기반을 유지하고 있었다.

균정이 제릉에게 밀려 피살되자 우징은 殘兵을 이끌고 淸海鎭의 弓福(張保臯)에게 의탁하였다. 소식을 들은 김양 역시 謀士와 병졸을 모아 우징에 합류하였다<sup>37)</sup>. 우징은 청해진의 군사력을 발판으로 王京 공격에 나섰는데, 실제 군사를 이끈 사람은 김양이었다.

이와 반대로 장보고 자신이 직접 내전에 나선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청해진에 있던 우징은 희강왕이 죽고 민애왕이 즉위하자 장보고에게 군사를 청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우징이 의탁한 직후가 아니라 민애왕 즉위 후 비로소 군사를 청하였다는 점이다. 그는 당시 “金明은 임금을 죽이고 自立하였으며 利弘은 함부로 君父를 죽였으니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다. 將軍의 군사에 의지하여 君父의 원수를 갚고자 한다”<sup>38)</sup>라고 하여 민애왕의 행위를 ‘弑君自立’으로 규정하였다. 곧 희강왕의 즉위는 서로 대결하는 상황에서 빚어진 것이라 우징이 명분적으로 문제삼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민애왕의 즉위는 군주 시해라는 논리를 확보한 것이다.

우징의 요청에 장보고는 군대 5천을 나누어 친구인 鄭年에게 주었다. 그리고 민애왕 원년(838) 3월 김양은 5천의 군사를 이끌고 武州를 공격하였는데, 이 5천의 군대는 바로 장보고가 내어준 군대로 판단할 수 있다. 곧 군사력은 청해진에 있던 사람들이지만, 지휘는 장보고가 아니라 김양이 담당하였던 것이다. 실상 중앙 정계에 참여한 경력이 없는 장보고 등이 군대를 지휘하여 중앙으로 진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

김양의 공격을 받은 武州는 바로 항복하였다. 군대는 南原으로 진격하여 정부군을 격파한 뒤 청해진으로 돌아왔다. 청해진에서 왕경으로 진격하기 위해서는 무주와 남원을 거쳐 대구, 또는 합천 방면으로 진격하게 되어 있다. 일단 무주와 남원을 장악하여 왕경 진격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다. 이것은 왕위쟁탈전 바로 전에 武州都督을 지냈던 김양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37) 『三國史記』 권44, 列傳4 金陽, “至開成二年八月 前侍中祐 收殘兵 入淸海鎭 結大使弓福 謀報不同天之讎 陽聞之 募集謀士兵卒 以三年二月入海 見祐徵與謀舉事.”

38) 『三國史記』 권10, 新羅本紀10 閔哀王 원년 2월, “金明弑君自立 利弘枉殺君父 不可共戴天也 願仗將軍之兵 以報君父之讎.”

김양은 동년 12월 본격적인 왕경 공격에 나섰다. 이 때 그는 平東將軍이라는 명칭으로 불렸는데, 이는 동쪽에 있는 왕경을 평정한다는 뜻이다.<sup>39)</sup> 그가 출정하자 金亮詢이 鷓洲(武州)의 군대를 이끌고 왔다. 이는 3월의 공격에서 무주를 장악한 결과이다. 김양이 이끄는 군대는 武州 鐵冶縣에 이르러 무주로 북상하다가 大監 金敏周가 이끄는 군대와 일전을 벌여 격파하였다.

이듬해 정월 김양의 군대는 達伐(大丘)에 이르러 伊滄 大昕 등이 이끄는 정부군을 다시 대파하였고, 곧바로 왕경으로 진입하였다. 민애왕은 병사에게 피살되었고 김양의 군대는 왕성을 접수하였다. 이어 궁궐을 정리한 뒤 우정을 맞이하여 옹립하였다(신무왕).

이처럼 김양은 균정과 제룡의 쟁탈전에서 족병을 동원하여 균정을 지원하였고, 균정이 피살되고 우정이 청해진으로 들어간 뒤에는 이에 합류하여 군대를 이끌고 신무왕을 세우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신무왕이 즉위 후 1년도 되지 않아 사망한 뒤 태자가 왕위에 오르면서(문성왕), 그 후견인으로서 김양의 입지는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 2. 金昕(大昕)의 활동과 행적

흥덕왕 사후 왕위 쟁탈전에서 김양이 균정의 편에 서고 신무왕이 즉위하는 데 공을 세웠지만, 무열왕계가 모두 같은 정치적 지향을 보인 것은 아니었다. 김양의 從父兄 金昕은 그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었다. 먼저 김양 열전에 부록된 그의 전기를 살펴보자.

① (김양의) 從父兄 昕은 字가 泰이고, 아버지 璋如는 벼슬이 侍中 波珍滄에 이르렀다.昕은 어려서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했다.

② 長慶 2년(헌덕 14, 822) 헌덕왕이 사람을 唐으로 보내려 하는데 적임자를 찾기 어려웠다. 누군가 昕을 천거하기를, “太宗의 후예로서 정신이 맑고 빼어나며 그릇은 깊이가 있어 선발될 만하다”라고 하므로 마침내 唐에 들어가 宿衛하도록 하였다.

③ 1년 남짓 지나 돌아가기를 청하니 皇帝가 詔書를 내려 金紫光祿大夫 試太常卿을 제수하였다. 신라에 돌아오니 국왕이 왕명을 욕되게 하지 않았다 하여 南原太守로 발탁하였고, 여러 번 옮겨 康州大都督에 이르렀으며, 곧이어 伊滄兼

39) 『三國史記』 권44, 列傳4 金陽, “陽號爲平東將軍.”

당시 祐徵의 군대는 閻長·張弁·鄭年·駱金·張建榮·李順行 등 여섯 명의 장수가 군대를 이끌었는데 김양은 이들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다.

相國을 더하였다.

④ 開成 己未年(민애 2, 839) 윤정월에 大將軍이 되어 10만의 군대를 이끌고 大丘에서 淸海鎮의 군대를 막았으나 패배하였다.

⑤ 스스로 敗軍한 죄가 있지만 죽어서 편할 수도 없었기에 다시 관직을 하지 않고 小白山에 들어가 칩옷을 입고 채소를 먹으며 승려들과 함께 노닐었다.

⑥ 大中 3년(문성 11, 849) 8월 27일에 이르러 병을 얻어 山齋에서 죽으니 향년 47세였다. 그 해 9월 10일 奈靈郡의 남쪽 들에 장사지냈다. 아들이 없어 夫人이 喪事를 주관했는데 뒤에 比丘尼가 되었다.<sup>40)</sup>

①은 金昕에 관한 기본 정보를 제시한 것이다. 김흔은 김양의 從父兄이며, 字는 泰, 아버지는 侍中 波珍滄을 지낸 璋如로 되어 있다.

여기서 우선 그의 字가 ‘泰’로 되어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통상 字는 두 글자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삼국사기』 열전에서 字를 밝힌 경우는 몇 명에 불과한데, 김흔 외에 金仁問(仁壽), 金陽(魏昕), 崔致遠(孤雲/海雲), 薛聰(聰智), 向德의 아버지 善(潘吉) 정도이다. 모두 두 글자로 되어 있어 김흔의 字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현실적으로 한 글자의 字를 사용했다기보다 본래 두 글자이지만 한 글자가 탈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하나의 단서는 김양의 字가 魏昕이고 김흔이 이름에 ‘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그의 字가 본래 ‘泰昕’인데 ‘어떤 이유에선가 본래의 字에서 ‘昕’이 탈락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泰’와 ‘太’가 혼용될 수 있고 ‘太’는 ‘大’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그의 字가 ‘大昕’일 가능성도 찾아진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언급할 것이다.

②는 김흔이 당에 파견되어 宿衛하게 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무열왕의 후손으로서 자질을 평가받아 추천되었고, 入唐하여 숙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長慶 2년은 헌덕왕 14년(822)이다. 신라본기에도 김흔의 파견과 숙위에 대한 내용이 보인다.

40) 『三國史記』 권44, 列傳4 金昕, “從父兄昕 字泰 父璋如仕至侍中波珍滄 昕幼而聰悟 好學問 長慶二年 憲德王將遣人入唐 難其人 或薦昕 太宗之裔 精神朗秀 器宇深沈 可以當選 遂令入朝宿衛 歲餘請還 皇帝詔授金紫光祿大夫試太常卿 及歸 國王以不辱命 擢授南原太守 累遷至康州大都督 尋加伊滄兼相國 開成己未閏正月 爲大將軍 領軍十萬 禦淸海兵於大丘 敗績 自以敗軍 又不能死綏 不復仕宦 入小白山 葛衣蔬食 與浮圖遊 至大中三年八月二十七日 感疾終於山齋 享年四十七歲 以其年九月十日 葬於奈靈郡之南原 無嗣子 夫人主喪事 後爲比丘尼.”

王子 金昕을 보내 당에 들어가 朝貢하고서 드디어 아뢰기를, “앞서 大學生으로 있던 崔利貞, 金叔貞, 朴季業 등을 고국으로 돌려보내 주시고, 새로 조정에 온 金允夫, 金立之, 朴亮之 등 12인은 머물러 宿衛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어 國子監에 배치하여 공부하게 하고 鴻臚寺에서 資糧을 지급할 것을 청하니 따랐다.<sup>41)</sup>

위의 기사에서 김흔은 王子로 되어 있는데, 실제 왕의 아들이 아니라 당에 파견되는 신라 왕족은 흔히 왕자를 칭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sup>42)</sup> 또한 그의 파견 시점이 헌덕왕 17년(825)으로 되어 있어 헌덕왕 14년으로 적은 열전 기사와 차이를 보인다.<sup>43)</sup>

崔致遠이 찬술한 「聖住寺朗慧和尚碑」에도 그의 入唐 기사가 보인다.

長慶 初에 朝正使로 가는 王子 昕이 唐恩浦에 배를 정박하니 태위 줄 것을 청하였다.<sup>44)</sup>

위의 기사는 김흔이 중국에 가는 배편에 朗慧가 동승을 요청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시점이 ‘長慶初’라고 하였는데, 헌덕왕 14년은 장경 2년, 헌덕왕 17년은 寶曆 원년이 되어 열전 기사의 신뢰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최치원이 비문을 찬술할 때 김흔의 전기를 채용했을 것이라고 보면, 비문에 김흔의 입당 시점이 장경 초로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만으로 실제 김흔의 입당 시점을 헌덕왕 14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헌덕왕 14년 12월에 桂弼을 보내 조공하고 있어<sup>45)</sup> 같은 해 김흔을 따로 보

41) 『三國史記』 권10, 新羅本紀10 憲德王 17년 5월, “遣王子金昕 入唐朝貢 遂奏言 先在大學生 崔利貞金叔貞朴季業等 請放還蕃 其新赴朝金允夫金立之朴亮之等一十二人 請留宿衛 仍請配國子監習業 鴻臚寺給資糧 從之.”

42) 李基東, 「新羅 興德王代の 정치와 사회」 『國史館論叢』 21, 1991; 『新羅社會史研究』, 一潮閣, 1997, pp. 159~160.

애장왕 3년 均貞을 假王子로 삼아 倭에 質子로 보내려 한 것에서 이러한 원리를 확인할 수 있다(『三國史記』 권10, 新羅本紀10 哀莊王 3년 12월, “授均貞大阿滄 爲假王子 欲以質倭國 均貞辭之”).

43) 『舊唐書』 신라전에도 寶曆 원년, 곧 헌덕왕 17년에 王子 金昕이 내조한 것으로 되어 있다(『舊唐書』 권199, 列傳149 新羅, “寶曆元年 其王子金昕來朝”).

44) 『譯註韓國古代金石文』 III, 聖住寺朗慧和尚塔碑, “泊長慶初 朝正王子昕 艤舟唐恩浦 請寓載許焉.”

냈다고 보기 어려운 면도 있다. 또한 연대기 자료와 전기 자료의 차이가 발생할 때 아무래도 연대기 자료 쪽의 신뢰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이로 보아 김흔의 입당 시점은 신라본기 기사대로 헌덕왕 17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한다.<sup>45)</sup>

金昕의 발탁은 당시 발생한 金憲昌 父子의 반란과 관련된다. 김헌창의 난은 무열왕의 후손이 일으킨 것이다. 해공왕 사후 무열왕 직계인 金周元은 내물왕 후손인 선덕왕과 원성왕에게 밀려 왕위에 오르지 못했다. 이에 반발한 김헌창은 熊川州에서 반란을 일으켰으나 진압되었다. 3년 뒤 김헌창의 아들 梵文이 다시 반란을 일으켰으나 역시 진압되었다. 이후 원성왕의 후손이 왕위를 이어가면서 무열왕계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기존의 왕실이었던 무열왕계를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었다. 이에 일부 인물을 발탁하여 무열왕계와 원만한 관계를 도모할 필요가 있었다. 그 대상이 바로 김흔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를 발탁한 시점이 범문의 난을 진압한 직후라는 점과 그에 대해 ‘太宗의 후예’라는 점이 적시된 것은 이러한 의도를 시사한다. 이후 김흔은 정계의 중요 인물로 성장하는데, 후술하듯이 그는 민애왕 정권의 수립에도 기여하고 伊滄兼相國의 지위까지 오른 것으로 파악된다.

③은 김흔이 숙위를 마치고 귀국한 후의 관력을 정리한 것이다. 그는 南原太守와 康州都督을 역임하고 伊滄에까지 올랐다. 비슷한 시기 김양이 固城郡太守와 中原大尹, 武州都督을 역임한 것과 유사한 모습이지만, 김양과 달리 그는 중앙 정계의 고위직까지 지냈다. 이는 흥덕왕 사후 벌어진 왕위쟁탈전에서 김명(민애왕)의 편에 섰던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그는 김양이 淸海鎭의 군사력을 얻어 왕경을 공격하자 이를 방어하는 책임자로 나섰다. ④에 따르면 그는 開成 己未年, 곧 민애왕 2년(839) 윤정월에 大將軍이 되어 10만의 군대를 이끌고 大丘에서 청해진의 군대와 일전을 벌였으나 패하였다.

그런데 당시 전황에 대해 신라본기에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김양의 군대가) 19일에 達伐 언덕에 이르렀다. 왕이 군대가 이른다는 소식을

45) 『三國史記』 권10, 新羅本紀10 憲德王 14년 12월, “遣桂弼入唐朝貢.”

46) 헌덕왕 14년 3월에 金憲昌의 난이 발생하였고, 김흔의 파견은 헌덕왕 17년 5월의 일로 되어 있다. 열전 기사대로 헌덕왕 14년에 파견되었다고 보고 이를 5월로 비정하면, 반란 과정에 김흔을 파견한 것이 되어 현실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이는 범문의 난까지 수습된 후에 파견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헌덕왕 14년은 그의 파견을 김헌창의 난에 대한 대응으로 인식한 데 따라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한다.

듣고 伊滄 大昕과 大阿滄 允璘, 嶷勛 등에게 명하여 군대를 거느리고 막게 하였다. 또 (김양의 군대가) 일전을 벌여 크게 이기니 王軍에서 죽은 자가 반이 넘었다.<sup>47)</sup>

위의 기사에는 伊滄 大昕이 大阿滄 允璘 등과 함께 군대를 이끌고 김양의 군사 에 맞선 것으로 되어 있다. 大昕이 伊滄이라는 점과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어 총 지휘관으로 보인다는 점은 김흔이 이찬으로서 大將軍이 되어 방어군을 지휘한 것과 합치한다. 곧 大昕이 바로 金昕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sup>48)</sup> 이는 앞서 지적 했듯이 실제 그의 字가 泰昕(大昕)이었다는 해석과 연결된다.

같은 상황에 대해 이름이 다르게 나오는 것은 자료 계통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열전 기사는 전기 자료를, 본기 기사는 연대기를 각각 채용한 것이다. 열전에 大丘라는 漢化된 지명이 나오는 것과 달리 본기 기사에는 達伐이라는 고유어 지명이 나온다. 경덕왕대 한식으로 수정된 읍호는 혜공왕대 이후 다시 고유어로 바뀌었다. 이 상황에 비추어 보면 본래 기사는 達伐로 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 大丘로 적은 것은 이 자료가 연대기보다 후대에 정리된 것임을 시사한다. 김흔과 대흔의 인명 차이도 이러한 상황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이후 사적과 상충되는 점이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④에서 김흔은 패전 후 은거하다가 그대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되어 있다. 실제 최치원이 찬술한 「성주사낭혜화상비」에는 문성왕 7년(845) 귀국한 낭혜가 김흔을 만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때 김흔에 대해 은퇴하여 ‘山中宰相’으로 불린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산중재상’은 재상을 지낸 그가 懸車, 곧 은퇴하여 소백산에 들어간 사정과 연결된다. 따라서 그가 정계에 복귀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신라본기에는 문성왕 11년(849) 기사에 그가 등장한다.

伊滄 金式과 大昕 등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伏誅되었다. 大阿滄 昕鄰은 죄에 연좌되었다.<sup>49)</sup>

47) 『三國史記』 권10, 閔哀王 2년 윤정월, “十九日 至于達伐之丘 王聞兵至 命伊滄大昕大阿滄允璘嶷勳等 將兵拒之 又一戰大克 王軍死者過半.”

48)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金昕과 大昕을 별개의 인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양자를 동일인으로 보는 견해로는 다음이 있다.

김윤곤, 「新羅의 寺院莊舍 : 浮石寺를 중심으로」 『考古歷史學志』 7, 1991, pp. 286~287. 문경현, 앞의 글, 2000, pp. 417~427.

송은일, 「新羅下代 景文王系の 成立」 『全南史學』 22, 2004, p. 140.

49) 『三國史記』 권11, 文聖王 11년 9월, “伊滄金式大昕等叛 伏誅 大阿滄昕鄰 緣坐罪.”

위의 기사는 伊滄 金武과 大昕 등이 모반했다가 伏誅되었고 大阿滄 昕鄰도 연루되었다는 내용이다.<sup>50)</sup> 은거하고 있어야 하는 대흔이 모반의 주역으로 언급되고 있음은 의문이다.

이 문제는 대흔과 김흔이 별개의 인물이라고 보면 간단하다. 그러나 위의 大昕이 청해진 군대에 맞선 伊滄 大昕이 다른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동일한 상황에서 군대를 지휘한 대흔과 김흔이 별개의 인물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의 대흔은 김흔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대흔이 김흔이라는 것은 그의 사망 시점이 비슷하다는 데서도 추론이 가능하다. 열전에서 김흔은 문성왕 11년 8월 27일에 사망하였고, 동년 9월 10일에 소백산에 인접한 奈靈郡에 장사를 지낸 것으로 되어 있다. 김식의 모반은 바로 동년 9월에 발생하였다. 이러한 시점의 일치는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시 말해 문성왕 11년의 모반과 김흔이 사망은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다만 사망 일시가 모반 시점보다 약간 앞서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러한 이해에 걸림돌이 되는 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할 것이다.

김흔이 '伊滄兼相國'이 되는 것은 바로 민애왕 즉위에 따른 것이며, 이에 그가 방어진을 지휘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민애왕 축출 후 정상적으로 정계에 남아 있을 수는 없었다. 열전에서 그가 패전의 책임을 지고 은거하게 되었다는 설명은 곧 그가 중앙 정계에서 밀려난 사정을 반영한다.

한편 문성왕 11년 모반 사건은 前년에 魏昕(金陽)이 侍中에서 물러난 것을 계기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김양은 문성왕 19년(847) 50세의 나이로 사망하므로 문성왕 11년에는 나이가 42세에 불과하였다. 문성왕 즉위이래 실권자로 있던 그가 40대 초반에 시중에서 물러나는 것은 의외의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는 그가 정치적으로 밀려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그가 사망한 후 이루어진 예우를 감안하면 정치적 도태로 보기는 어렵다.<sup>51)</sup> 「성주사낭해화상비」를 보면 문성왕 19년(857) 이후 헌안왕과 舒發韓 魏昕이 南北宰相으로 정국을 주

50) 大阿滄 昕鄰은 大昕과 함께 청해진 군대와 맞서선 大阿滄 允璘과 동일인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51) 송은일은 당시 김양이 정치적으로 몰락했고, 이를 대신하여 경문왕의 아버지 啓明이 부상한 것으로 이해하였다(송은일, 앞의 글, 2004, pp. 136~138). 그리고 문성왕 9년에 태자로 책봉된 왕자가 김양의 외손일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외손의 후계자 지명과 김양의 실각은 앞뒤가 맞지 않는 해석으로 보인다. 다만 문성왕이 동왕 3년 당의 책봉을 받았음에도 동왕 9년에 비로소 태자 책봉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태자가 김양의 외손일 가능성은 인정된다.

도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헌안왕 諡靖(義正)은 문성왕 11년(849) 상대등이 되고 있어 두 사람의 권력 양분은 이 이후의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로 보아 김양은 시중 사퇴 후에도 여전히 권력의 중추로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점에서 그의 사퇴는 건강 문제가 개재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그는 왕위 쟁탈전에서 화살을 맞아 부상을 입었던 전력이 있다.

다만 김양이 권력을 양분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정치 일선에서 한발 물러선 것은 정계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의정의 상대등 임명은 김양의 시중 사퇴로 야기될 수 있는 정계의 동요를 제어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식의 모반은 이러한 정치적 틈을 이용하여 민애왕 계열에서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다.<sup>52)</sup> 그리고 김흔은 민애왕 정권의 책임자였기 때문에 정계에서 물러나 은거하고 있었음에도 모반에 연루되었던 것이다. 기사 뒤에 연좌가 언급된 것을 보면, 당시 모반은 처벌 범위가 넓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은거 중인 김흔의 주동여부는 알 수 없지만, 민애왕 정권의 핵심이었던 그가 모반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문성왕 11년(849) 모반 기사에 보이는 대흔은 김양의 종부형 김흔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김흔의 전기에 모반 연좌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그 사망 시점이 모반보다 앞서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이는 원전의 계통과 기사의 생성 과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김흔의 전기는 김양의 전기에 부록되어 있다. 김양의 공적과 전기가 무열왕계의 복권에 연동된 것이라고 보면, 김흔의 전기 또한 같은 맥락에서 정리될 것이다. 하지만 실제 이력은 이에 반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그는 민애왕 편에 서서 군대를 이끌었고, 결국 모반에 연루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전기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숨기고 호의적인 평가가 가능한 내용만 남긴 것이다. 전기 자료는 일반적으로 부정적 측면을 숨기고 긍정적 부분을 부풀리는 경향을 가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행적에 오류가 개재할 여지도 크고 일부 행적을 의도적으로 변형시킬 소지도 가진다.

김흔의 전기에 근거한 열전 기사에도 이러한 요소가 다수 검출된다. 우선 민애왕 때 상국을 지내며 김양에 맞서 군대를 지휘한 것보다는 패전 후 그 책임을 지고 은거한 행적이 부각되는 것은 전기에서 긍정적 부분만 드러내는 경향을 그대

---

52) 金昌謙, 「新羅 下代 王位篡奪型 反逆에 대한 一考察」 『韓國上古史學報』 17, 1994, p. 250.  
송은일, 앞의 글, 2004, p. 140.  
姜在光, 「文聖王代의 政局과 「昌林寺 無垢淨塔願記」 造成의 정치적 배경」 『韓國古代史探究』 7, 2011, p. 108.

로 반영한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입당 숙위 시점이 신라본기와 다른데, 이는 열전 기사에 오류가 개재된 것으로 파악된다. 達伐이 大丘로 기재된 것도 후대 인식의 일단을 보여준다.

또한 그의 字가 한 글자로만 되어 있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단순한 누락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가 대흔과 동일인이라는 인식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글자를 삭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흔이 맞선 대상을 “청해진의 병사”라고만 말하고 지휘관인 김양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둘의 대립 관계를 드러내지 않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이러한 제반 요소를 고려하면 그의 죽음과 관련된 혐의를 피하기 위해 사망 일자를 조정했다고 보더라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실상 그의 사망 일자와 장례 일자까지 상세히 정리된 것 자체가 의문을 키운다. 열전 수록 인물 중 사망 일자까지 명시된 것은 金庾信과 金仁問, 金陽, 金昕 등 4명이다. 이 중 김유신은 사망 일자만 있고 장례 일자는 없다. 김인문은 당에서 사망한 뒤 신라에서 6개월 뒤에 장례를 치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장례와는 차이가 있다. 결국 사망 일자와 장례 일자까지 명확히 명시한 것은 김양과 김흔 뿐인 셈이다.

더구나 김흔은 은거 중에 사망한 것임에도 사망과 장례 일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것은 후대의 관점에서 이들의 전기 자료가 찬술되어 『삼국사기』에 채록된 것을 의미한다. 이 때 김흔의 전기는 김양이 전기를 염두에 두고 정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사망 시점을 8월 말로 다소 앞당겨 기록함으로써 9월에 발생한 모반과의 관련성을 피한 것이라 이해된다.

이 문제는 결국 대흔과 김흔을 별개로 볼 것인가 동일인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그의 자에 대한 기록이 가지는 예외적 양상과 청해진의 군대에 맞선 책임 지휘관이 기록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 기재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두 사람은 동일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여기에 전기 자료의 속성을 고려하면 사망 일자의 조정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일이다.<sup>53)</sup>

53) 사망 일자를 포함하여 金昕(大昕)에 대한 기사가 신라본기와 열전에 차이가 나는 것을 두고 김윤곤은 신라본기의 대흔을 김흔의 오기로 보고 열전의 사망 기사를 부정하였다(김윤곤, 앞의 글, 1981, pp. 286~287). 이에 대해 문경현은 자료 계통의 차이를 지적하며 열전 기사가 후손들의 전기에 의거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문경현, 앞의 글, 2000, p. 424). 자료 계통의 차이를 지적한 부분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김흔 후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헌덕왕대 이후 무열왕계의 활동을 긍정적 관점에서 제시하기 위해 김양과 김흔의 전기가 함께 정리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한다.

이상에서 김흔에 대해 분석 추론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金陽(魏昕)의 從父兄인 金昕(泰昕·大昕)은 헌덕왕 17년 발탁되어 당에 파견되었는데, 그는 김현창 부자의 반란 이후 원성왕계에서 무열왕계를 포용하는 상징적인 인물이었다. 귀국 후 지방 관직을 역임하다 중앙 정계에 자리를 잡았고, 민애왕의 즉위에도 공헌함으로써 그 반대편에 섰던 김양과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그는 민애왕 즉위 후 伊滄兼相國에까지 이르렀고, 김양이 청해진의 군대를 이끌고 왕경을 공격하자 大將軍이 되어 이에 맞섰으나 패배하였다.

민애왕 축출 후 그도 정계에서 밀려나 은거하였다. 그런데 문성왕 10년(848) 김양이 건강 문제로 侍中에서 물러나자 이듬해 민애왕 계열로 추정되는 金式 등의 모반이 발생하였다. 김흔은 민애왕 정권의 핵심이었던 전력으로 인해 이에 연루되어 처형되었다. 하지만 전기에서는 그의 전력이 김양의 공업 및 이에 따른 무열왕계의 복권에 저축된다고 보아 그가 은거 중에 죽은 것으로만 정리하였고, 사망 시점도 모반 바로 직전인 것처럼 고쳤다.

### Ⅲ. 文聖王代 무열왕계의 복권과 三韓一統意識의 출현

#### 1. 金陽의 활동과 무열왕계의 복권

신무왕이 즉위 3개월만에 사망하고 태자가 왕위에 올랐다(문성왕). 문성왕은 즉위 후 김양의 공을 追錄하여 蘇判兼倉部令을 제수하였고, 이어 侍中兼兵部令으로 임용하였다.<sup>54)</sup> 김양이 재상으로서 병부령을 겸직한 것은 곧 정치와 군사의 실권을 모두 장악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김양은 신무왕 즉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만큼, 문성왕 즉위 후에도 정계의 중추적 위치를 점할 것이지만, 문성왕 즉위 후 발생한 일련의 모반 사건은 김양의 정치적 비중을 더욱 높이는 매개가 되었다. 문성왕 3년(841)에는 一吉滄 弘弼이 모반했다가 일이 발각되자 海島로 도주하였다.<sup>55)</sup>

이 해 7월 문성왕은 당으로부터 책봉을 받았다.<sup>56)</sup> 이것은 흥덕왕 사후 왕위 쟁

54) 『三國史記』 권44, 列傳4 金陽.

이 조치는 新羅本紀에서 문성왕 9년의 일로 확인된다.

55) 『三國史記』 권11, 新羅本紀11 文聖王 3년, “(春) 一吉滄弘弼謀叛 事發逃入海島 捕之不獲.”

56) 『三國史記』 권11, 新羅本紀11 文聖王 3년 7월.

탈전이 벌어진 뒤 처음으로 이루어진 국왕 책봉이었다. 신무왕이 무력으로 왕위를 차지했다가 일찍 사망한 후 왕위를 이어받은 문성왕은 국왕으로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 당의 책봉을 도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듬해 魏斯(金陽)의 딸을 妃로 들이는 조치가 있었다.<sup>57)</sup> 이것은 김양과의 정치적 결합을 공고히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한편 문성왕 8년(846)에는 弓福(張保臯)이 반란을 일으켰다. 前年에 장보고의 딸을 次妃로 들이고자 했으나 섬사람의 딸이라는 이유로 朝臣들이 반대에 맞혀 무산되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장보고는 반란을 일으켰으나 암살되었다.<sup>58)</sup>

그런데 장보고의 피살 시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장보고의 피살은 『續日本後記』에는 문성왕 3년(841) 11월의 일로 되어 있다.<sup>59)</sup> 이것은 일본 승려 圓仁의 『入唐求法巡禮行記』의 會昌 5년(845) 7월 9일자 기사에 淸海鎮兵馬使를 지낸 崔暈이 ‘國難’으로 인해 唐으로 도망해 와 있었다는 내용을 통해 뒷받침되었다.<sup>60)</sup> 두 자료는 장보고의 활동과 가까운 시기에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를 따르고 있다.<sup>61)</sup>

한편 『三國遺事』에는 신무왕이 弓巴(弓福)에 의탁했을 때 도움을 청하며 왕위에 오를 경우 그의 딸을 비로 맞이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전승이 보인다.<sup>62)</sup> 이에 따르면 신무왕이 장보고에게 納妃를 약속했으나 곧바로 사망하였고, 이에 장보고가 문성왕에게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가 실패하자 난을 일으켰다는 해석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이듬해 김양의 딸이 왕비가 된 것은 결국 장보고에게 약속한 자리를 김양이 차지하게 된 것으로 이해되며, 이로 미루어 장보고 제거에 김양이 결정

57) 『三國史記』 권11, 新羅本紀11 文聖王 4년 3월, “納伊滄魏斯之女爲妃.”

58) 『三國史記』 권11, 新羅本紀11 文聖王 8년 “春 淸海弓福怨王不納女 據鎮叛.”

59) 『續日本後記』 권9 承和 9년 정월, “己等張寶高所攝島民也 寶高去年十一月中死去.”

승화 9년은 문성왕 4년에 해당하며, 장보고의 죽음은 前年인 문성왕 3년의 일이 된다.

60) 『入唐求法巡禮行記』 권4, 會昌 5년 7월 9일 “遇崔暈第十二郎 曾爲淸海鎮兵馬使 在登州赤山院時 一度相見 (중략) 相期之後 其人又歸到新羅 遇國難 逃至漣水住.”

61) 이영택, 「장보고해상세력에 대한 고찰」, 『韓國海洋大學論文集』 14, 1979, p. 89.

이후 장보고 연구에서는 대개 이 설을 따르고 있다.

62) 『三國遺事』 권2, 紀異 弓巴, “四十五神武大王潛邸時 謂俠士弓巴曰 我有不同天之讎 汝能爲我除之 獲居大位 則娶爾女爲妃 弓巴許之.”

신무왕의 약속은 당시 사실이 아니라 정보고의 군사적 지원과 納妃로 인한 반란을 매개로 생성된 전승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곧 출신 문제가 명확한 장보고의 딸을 들인다는 것은 당초 그의 힘을 빌린 신무왕의 약속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하는 인식을 낳을 수 있는 것이다.

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도 한다.<sup>63)</sup>

장보고의 피살 시점에 대해 여기서 논할 여력은 없지만, 어느 경우든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에 주목할 수 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것처럼 장보고의 제거가 김양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이다. 장보고의 납비 실패와 김양의 납비 성공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후에도 김양은 연이은 모반을 제압하며 권력의 증추로 자리를 잡게 된다. 문성왕 9년(847) 5월에는 伊滄 良順 등이 모반했다가 복주되었다.<sup>64)</sup> 양순은 회강왕 2년(837) 阿滄으로 칭해진에 있던 우징에게 투항한 인물이다.<sup>65)</sup> 문성왕 2년(840)에는 이찬으로 승진하였고,<sup>66)</sup> 문성왕 5년(843)에는 侍中까지 올랐다.<sup>67)</sup> 그러나 이듬해 바로 시중에서 물라나고 金茹가 대신 시중이 되었다.<sup>68)</sup> 그가 1년 만에 시중에서 물러난 것은 정치적인 갈등을 짐작케 하는데, 아마도 김양의 정치적 실권 장악에 따라 밀려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sup>69)</sup>

특히 양순은 김양 및 장보고와 더불어 신무왕 옹립에 공헌을 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보면 양순의 반란은 장보고 암살 후 그 잔여 세력과 연계하여 도모한 것일 가능성도 상정된다. 이들의 모반은 김양의 권력 독점 과정과 맞물려 일어난 것이며, 결과적으로 김양의 권력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게 되었다.

일련의 반란을 진압한 뒤 문성왕은 太子를 책봉하는 한편, 김양을 侍中으로 임용하여 정국의 안정을 도모하였다.<sup>70)</sup> 이 때 김양은 전술한 바와 같이 兵部令까지 겸하였는데, 이것은 그가 장보고와 양순을 제거하면서 정치와 군사에서 모두 실권을 장악한 것을 보여준다.

다른 하나는 김현창의 난에 이어 또다시 지방에 근거를 둔 반란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장보고의 반란이 어떤 정치적 지향을 가진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지방에서 일어난 반란은 체제 분열의 위험성을 다시 환기시키는 것이거니와 칭해진

---

63) 윤병희, 앞의 글, 1982, p. 72.  
 64) 『三國史記』 권11, 新羅本紀11 文聖王 9년 5월, “伊滄良順 波珍滄興宗等叛 伏誅.”  
 65) 『三國史記』 권10, 新羅本紀10 僖康王 2년 6월, “均徵妹婿阿滄禮徵 與阿滄良順, 亡投於祐徵.”  
 66) 『三國史記』 권11, 新羅本紀11 文聖王 2년 정월, “以禮徵爲上大等 義琮爲侍中 良順爲伊滄.”  
 67) 『三國史記』 권11, 新羅本紀11 文聖王 5년 정월, “侍中義琮病免 伊滄良順爲侍中.”  
 68) 『三國史記』 권11, 新羅本紀11 文聖王 6년 3월, “侍中良順退 大阿滄金茹爲侍中.”  
 69) 金昌謙, 「왕위계승과 叛逆」 『新羅 下代 王位繼承 研究』, 景仁文化社, 2003, pp. 306~308.  
 70) 『三國史記』 권11, 新羅本紀11 文聖王 9년 11월, “封王子爲王太子 侍中金茹卒 伊滄魏听爲侍中.”

또한 구 백제 지역이었다는 점에서 신라 정부로서는 그 위협성을 더욱 첨예하게 인식하였을 것이다. 문성왕 13년(851)의 청해진 해체는 결국 그러한 부담이 작용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sup>71)</sup>

따라서 김헌창의 난을 수습하기 위한 흥덕왕의 행보처럼 문성왕대에도 체제 통합을 위한 이념적 조치가 취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 표현의 하나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昌林寺無垢淨塔의 건립이다. 문성왕이 직접 발원하여 건립된 이 탑의 誌文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생각하건대 국왕께서는 여러 劫 동안 善을 닦으셔서 지위가 인간과 천상의 위에 있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이 苦海를 떠다니고 六途를 도는 것을 불쌍히 여겨 장차 그들을 구원할 길을 만들어 부처의 정토로 이끌고자 하는 것이 無垢淨塔을 건립하는 것 만한 것이 없습니다. (중략) 다시 바라건대 國王께서는 길이 인간과 천상의 주인이 되고 그 업보가 다하는 날을 만나 곡식을 보시하는 이름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기를 기원합니다.<sup>72)</sup>

위의 지문은 문성왕의 발원으로 중생을 구원하는 방안으로 무구정탑을 세우는 의의를 밝히고 있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淨土信仰의 표현이지만, 국왕이 직접 발원했다는 것은 나름의 정치적 의미를 시사한다.

이에 대해서는 현실 세계에서 국왕의 초월적 지위를 강조하고, 정치적 변란과 자연재해를 겪은 뒤의 화합을 도모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sup>73)</sup> 실제 사상적으로 불교적 보편성을 통해 중생을 구원하는 국왕의 지위를 표상하는 것은 그 이면에서 정치적으로 국왕을 중심으로 한 체제 통합을 도모하는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지향은 사상적 종교적 측면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역사적 의식의 측면에서도 표출된다. 특히 체제 분열의 위기는 이를 봉합할 수 있는 역사적 당위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문성왕의 지향은 후술할 삼한일통의식의 출

71) 『三國史記』 권11, 新羅本紀11 文聖王 13년 2월, “罷淸海鎮 徙其人於碧骨郡.”

서윤희는 장보고를 암살하는 閻長이 『續日本後記』에 武州別駕로 나오는 것을 토대로 청해진을 무주의 지배 하에 편입시킨 것이라고 이해하였다(徐侖希, 「淸海鎮大使 張保皋에 관한 연구 : 新羅 王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震檀學報』 92, 2001, p. 32). 장보고 사후 청해진에 대한 개편 조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염장의 직책만으로 청해진이 무주 관할이 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72) 『譯註韓國古代金石文』 III, 昌林寺無垢淨光塔誌, “伏以國王 曆劫修善 位冠天人 而愍有情之 浮苦海 環廻六途 將設拯濟之門 導引淨域者 無越於建立無垢淨塔 (중략) 復願國王 永主人天 會其報盡之日 捨粟散之名 齊於無上之位.”

73) 강재광, 앞의 글, 2011, pp. 119~120.

현을 상정하는 하나의 단서가 된다.

이처럼 김양은 신무왕 즉위에 이어 문성왕대에 발생한 일련의 모반 사건을 제압하는 데 공을 세움으로써 문성왕의 정치적 기반이 되었다. 김양의 정치적 부상은 김주원이 왕위 경쟁에서 밀려나고 김현창의 반란이 진압되면서 퇴락하고 있던 무열왕계의 본격적인 정치적 복권을 의미하였다. 헌덕왕대 이후 무열왕계는 김훈이 대표하고 있었으나 그가 민애왕의 측근으로 활동하다가 숙청된 후 김양이 무열왕계의 중심이 되었고, 그 권위 또한 김훈을 능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김양의 위상은 사후에 이루어진 조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음이 전해지자 大王이 애통해 하며 舒發翰을 追贈하고, 부의를 내리는 것은 모두 金庾信의 舊例에 의거하도록 하였다. 그 해 12월 8일 太宗大王의 능에 陪葬하였다.<sup>74)</sup>

문성왕이 김양의 장례와 관련하여 내린 조치에서 두 가지 사항이 눈길을 끈다. 하나는 그에 대한 부의를 金庾信의 전례를 따르도록 했다는 것이다. 김유신은 무열왕의 즉위에도 공헌하였고, 무열왕과 문무왕을 도와 ‘통일’전쟁을 이끌었다. 그의 누이가 무열왕의 비가 되었고, 毗曇 등의 반란을 제압하였다. 흥덕왕 때에는 興武大王으로 추봉되는 데서 드러나듯이 신라 하대에 그의 공업이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었다.

김양에 대한 예우가 김유신을 전례로 삼는다는 것은 그의 공업이 김유신에 견주어 손색이 없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그는 왕위 경쟁에서 균정을 지원하고 그 아들 우정의 즉위에 큰 공헌을 하였다. 이어 문성왕이 즉위한 뒤 딸을 비로 들여 보냈다. 문성왕대 연이은 반란의 진압에도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공업으로 인해 그의 위상이 김유신에 비견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그를 무열왕릉에 매장하도록 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김양은 무열왕의 9세손이다. 이와 같이 먼 후손을 왕릉에 매장하도록 한 것은 그의 공업에 대한 특별한 평가와 더불어 무열왕에 대한 재인식을 유도하는 것이었다.

무열왕은 문무왕과 더불어 不遷之主로 공인되었지만, 애장왕대 개혁으로 종묘에서 밀려나 別廟로 이동하였다. 이것은 무열왕에 대한 평가가 전에 비해 하락됨을 반영한다. 특히 흥덕왕대 김유신의 흥무대왕 추봉은 ‘통일’전쟁의 공업을 통해 통합의 이념을 끌어내고자 한 것이었지만, 그 주역이 무열왕이 아니라 김유신으로

74) 『三國史記』 권44, 列傳4 金陽, “訃聞 大王哀慟 追贈舒發翰 其贈賻殮葬 一依金庾信舊例 以其年十二月八日 陪葬于太宗大王之陵.”

설정됨으로써 무열왕의 권위는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통합의 이념을 이끌어내더라도 이로 인해 무열왕, 혹은 문무왕의 권위가 높아지면 그 후손인 金周元을 밀어내고 왕위를 차지한 원성왕계의 명분이 약화될 수 있었다.<sup>75)</sup> 이 때문에 흥덕왕은 김유신을 부각시키는 방안을 택한 것이다.

그런데 무열왕의 후손인 김양의 정치적 부상엔 무열왕계의 복권과 더불어 무열왕의 권위 회복이라는 효과를 수반하였다. 문성왕으로서도 김양의 공적을 공인함과 더불어 그 연원이 되는 무열왕의 공업과 권위를 되살리는 조치가 필요하였다. 김양을 무열왕릉에 매장한 것은 양자의 위상을 아울러 환기하는 효과가 있었다.

다만 무열왕의 공업에 대한 인식은 어디까지나 무열왕계가 원성왕계에 대해 ‘신하’로서 고정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것은 김양의 장례를 김유신의 예에 준하여 치른 것에서 잘 표현되고 있다. 김유신은 흥덕왕대 추봉으로 왕족으로서 명분을 획득하였지만, 추봉 주체인 원성왕계에 대해서는 신하로서 규정된다. 김양은 무열왕의 후손으로서 왕족이지만 그 역시 신하라는 명분에는 변함이 없다.

결국 문성왕대에는 무열왕계의 복권과 더불어 무열왕의 공업을 재인식하는 것이 더 이상 현 국왕에 대한 명분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게 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오히려 무열왕의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무열왕계와의 정치적 결합이 공고해질 것이며, 무열왕의 공업을 통합의 주체로서 현 국왕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 전환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 2. 聖住寺碑의 건립과 三韓一統意識의 출현

신무-문성왕대 김양의 정치적 부상과 이에 따른 무열왕계의 복권은 그 선조인 무열왕의 공업에 대한 재인식을 유도하였다. 여기에 장보고의 반란은 지방 반란으로서 체제 분열의 위기를 다시 가져왔다.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삼한일통의식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단서로서 聖住寺의 창건이 주목된다. 朗慧 無染의 住錫을 통해 창건된 성주사는 무열왕의 후손인 金昕과 金陽이 단월로 깊이 간여하고 있었다. 또한 그 지역이 구 백제 지역에 속해 있어 주목을 끈다.

현재 성주사와 관련된 비문으로 金立之가 찬술한 「聖住寺碑」(이하 ‘성주사비’로 칭함)와 崔致遠이 찬술한 「聖住寺朗慧和尚碑」(이하 ‘낭혜화상비’로 칭함)가 있다.

75) 김창겸은 新金氏의 출현이 무열왕계와 김유신계를 확실하게 분리시켜 무열왕계를 약화시키는 방안이었다고 보았다(김창겸, 「신라시대 金庾信의 興武大王 追封과 ‘新金氏」 『新羅史學報』 18, 2010; 신라사학회, 『흥무대왕 김유신 연구』, 경인문화사, 2011, p. 246).

김입지의 「성주사비」는 낭혜가 생존해 있을 때인 문성왕대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76)</sup> 이에 대해 최치원의 「낭혜화상비」는 낭혜 입적 후 진성여왕 때 건립된 塔碑이다.

「성주사비」는 「낭혜화상비」에도 소개되어 있는데, “大師가 서쪽으로 유학하고 동쪽으로 돌아온 시기, 계율을 받고 깨달음을 얻은 인연, 公卿 守宰가 귀의하고 숭모한 일, 불상과 전각·影堂을 개창한 일”을 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sup>77)</sup> 이로 보아 성주사 창건과 관련된 사적비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성주사비」는 현재 몇 개의 碑片만 남아 있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먼저 「낭혜화상비」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성주사비」의 내용에 접근해 보기로 한다. 먼저 「낭혜화상비」에서 金昕 및 金陽과 관련된 부분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이에 북쪽으로 가서 평생 의탁할 곳을 찾았다. 마침 王子 昕이 은퇴하여 山中宰相으로 불렸는데, 우연히 만나 원하는 바가 맞게 되었다.昕이 말하기를, “師와 나는 모두 龍樹 乙粲의 후예인데 師의 內外가 龍樹의 자손이니 놀라움이 미칠 수 없는 듯합니다. 그러나 바다 밖에서 함께 했던 적이 있으니 親舊의 인연이 진실로 알지 않습니다. 熊川州 서남쪽에 절이 하나 있는데, 우리 조상 臨海公[조상의 諱는 仁問인데 唐에서 獮貊(고구려)을 멸한 공에 보답하여 臨海君公으로 봉하였다]께서 受封한 곳입니다. 그 사이에 큰 화재로 절이 받은 재가 되었으니 자비롭고 현명한 분이 아니면 누가 다시 일으켜 이어가게 하겠습니까. 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주지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sup>78)</sup>

② 당시 憲安大王께서 檀越 季舒發韓 魏昕과 더불어 南北宰相[각기 그 관청에 거주하니 左右相과 같다]이 되어 멀리서 제자의 예를 보이고 향과 차를 예물로 보내기를 거르는 달이 없었다.<sup>79)</sup>

76) 金立之는 문성왕이 발원한 昌林寺無垢淨塔의 誌文도 찬술하였다.

77) 『譯註韓國古代金石文』 III, 金立之撰 聖住寺碑, “大師西遊東返之歲年 稟戒悟禪之因緣 公卿守宰之歸仰 像殿影堂之開創.”

78) 『譯註韓國古代金石文』 III, 聖住寺朗慧和尚塔碑, “迺北行擬目選終焉之所 會王子昕 懸車爲山中宰相 邂逅適願謂曰 師與吾俱祖龍樹乙粲 則師內外爲龍樹令孫 眞瞠若不可及者 而滄海外躡蕭湘故事 則親舊緣固不淺 有一寺在熊川州坤隅 是吾祖臨海公[祖諱仁問 唐酬伐獮貊功 封爲臨海君公]受封之所 間劫(盡火)舊金田半灰匪慈哲孰能興滅繼絕 可強爲朽夫住持乎.”

79) 『譯註韓國古代金石文』 III, 聖住寺朗慧和尚塔碑, “時憲安大王 與檀越季舒發韓魏昕 爲南北宰相[各居其官 猶左右相] 遙展攝禮 贊以茗醪 使無虛月.”

①은 朗慧和尚이 會昌 5년(문성왕 7, 845)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성주사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경위를 담고 있다. 王子 昕은 전술한 金昕으로서 그가 당에 宿衛를 갈 때 취한 명칭을 반영한 것이다. 낭혜는 그의 도움을 받아 유학길에 오를 수 있었다.

김흔은 정계에서 밀려난 후 山中宰相으로 불렸는데, 이는 그가 소백산에 은거하였다는 행적과 일치한다. 곧 김흔은 민애왕의 편에 서서 김양이 이끄는 청해진의 군대에 맞섰다가 패한 후 정계에서 물러났다. 당시 그는 伊滄兼相國을 지냈기 때문에 ‘산중재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김흔은 낭혜와의 인연에 대해 같은 무열왕계임을 말하고 있다. 그가 말한 龍樹乙祭(伊滄)은 곧 무열왕의 아버지 龍樹(龍春)를 가리킨다. 비문에 의하면 낭혜의 8대조가 무열왕이며, 김흔은 金仁問의 후손으로 되어 있다. 김흔이 헌덕왕대 이후 정계에 발탁된 것은 왕위 계승이 단절된 후 그가 실질적인 무열왕의 嫡孫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김흔은 낭혜에게 熊川州의 서남쪽에 있는 절을 소개했는데, 이곳은 김흔의 선조인 臨海君公 金仁問이 受封한 곳으로 설명되어 있다. 이곳에 있던 절이 반이나 소실되자 김흔은 낭혜에게 이곳에 주석하며 절을 일으켜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낭혜는 大中(847-859) 초에 이곳에 머물게 되었고, 寺勢가 번창하자 문성왕이 寺名을 ‘聖住’라 내려주고 興輪寺에 소속케 하였다.

이 사업에는 김양도 참여하였다. ②는 절의 창건에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憲安大王이 檀越 季舒發韓 魏昕과 南北宰相이 되었다는 내용이 보인다. 문성왕의 숙부인 현안왕(諡靖/義正)은 문성왕 11년(849) 上大等이 되었다. 그리고 앞서 문성왕 10년 魏昕(金陽)은 侍中에서 물러났다. 伊滄으로 시중이 되었던 위흔은 사직 후에도 여전히 권력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80)</sup>

김흔이 발원한 성주사에 김양이 단월로 참여한 것은 몇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이곳이 선조 金仁問의 受封地로 인식되었던 만큼 김양으로서도 성주사의 창건과 경영에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참여한 것이 아님을 생각할 때, 김양의 참여에는 나름의 계기가 있었을 것인데, 그것은 바로 김흔의 사망으로 생각된다.

전술한 것처럼 김흔은 은거 중 문성왕 11년(849)에 발생한 김식의 모반에 연루되어 처형되었다. 정치적으로 다른 길을 걸었으나 무열왕의 후손으로서 김인문의

80) 김양은 侍中 사퇴 후에도 兵部令은 그대로 유지한 것이 아닌가 한다. 한편 『삼국사기』 열전에 따르면 舒發韓은 사후에 追贈된 것으로 되어 있다.

수봉지에 역시 무열왕계인 낭해가 주석하는 성주사가 창건된 만큼, 김흔이 사망한 뒤 김양이 이를 이어받아 완성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다만 「낭해화상비」는 진성여왕대에 찬술되었기 때문에 김흔이나 김양의 활동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다. 그보다는 역대 국왕의 예우를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 문성왕대에 건립된 「성주사비」는 사적비로서 낭해보다 성주사에 무게가 있으므로 절의 창건 및 지원과 관련된 단월들의 행적이나 창건이 가지는 의미 등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성주사비」의 내용을 살펴보자. 앞서 지적한 대로 비편만 남아 있어 정확한 내용 파악이 어려운데, 남아 있는 비편에는 단월의 시주를 통한 성주사의 조성에 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중 내용이 비교적 많은 3편과 7편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sup>81)</sup>

[3편]

- (1) 助成功德(下缺)
- (2) 丹檻璇題鴛鳳鱗□(下缺)
- (3) 租稻充入鑄像工價魏听伊滄(下缺)
- (4) 文紫磨金色臨寶座以益光□(下缺)
- (5) 之常祖稻已至於寺林衡運(下缺)
- (6) 宜和夫人是允興伊滄(下缺)
- (7) 潺湲高峯导日(下缺)」
- (8) 年月成(下缺)」

[7편]

- (1) (上缺)           伊滄庶兄施□□(下缺)
- (2) (上缺)           乃以成花殿雲楣綠(下缺)
- (3) (上缺)           金殿歎無佛像頓捨家(下缺)
- (4) (上缺)           盤紺絲之髮紅掌展瑞印之(下缺)
- (5) (上缺)           三層無垢淨石塔又擬立七祖(下缺)
- (6) (上缺)           □領色羅匹段并租一百石(下缺)
- (7) (上缺)           暮異□□□清潤日(下缺)

81) 관독문은 『譯註韓國古代金石文』의 것을 따랐다. 앞서 「성주사비」에 대해서는 黃壽永의 기초적인 고찰이 있었다.

黃壽永, 「金立之撰 新羅聖住寺碑」, 『文化財』 4, 1969.  
 黃壽永, 「金立之撰 新羅聖住寺碑(續)」, 『考古美術』 115, 1972.  
 黃壽永, 「金立之撰 新羅聖住寺碑(其三)」, 『考古美術』 117, 1973.

우선 3편의 내용부터 살펴보자. 1행의 “助成功德”은 성주사의 창건 내지 佛殿 조성 등에 참여한 단월과 관련된 내용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한다. 2행의 丹檻을 통해 이 부분에 불전 조성에 대한 내용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3행은 魏旰(金陽)이 租稻와 불상 鑄成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했다는 내용으로, 그가 “助成功德”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4행에는 불상이 놓이는 寶座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5행에는 宜和夫人과 允興伊滄 두 사람이 보인다. 의화부인은 『삼국사기』에는 보이지 않으며 允興은 경문왕 6년(866)에 모반했다가 주살되는 인물이다.<sup>82)</sup> 이 구절은 “의화부인은 윤흥 이찬의 …이다”로 해석되는데, 이러한 경우 대개 그 아버지가 나오게 된다는 점에서 의화부인은 윤흥의 딸일 가능성이 높다.<sup>83)</sup>

다음에 7편의 내용을 살펴보자. 1행의 伊滄庶兄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비편에는 위훈과 윤흥 두 명의 이찬이 보이며, 이외에도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위훈이 불상 주성의 중심 단월이라는 점과 윤흥은 의화부인과의 관계가 제시되는 것으로 실제 단월 참여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을 볼 때, 여기서 이찬은 위훈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의 庶兄은 從父兄 金旰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다음 내용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인될 것이다.

2행은 花殿, 곧 성주사의 불전이 완성된 사실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1행에 보이는 시주자로서 伊滄庶兄은 바로 불전 조성의 시주자인 것이고, 이는 성주사 창건과 관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김흔이 성주사 창건의 주역이라는 사실과 연결된다.

3행의 내용은 불전이 완성되었으나 안에 불상이 봉안되지 못한 사정과 이에 단월이 재산을 희사하여 불상을 조성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3편에 확인되듯이 불상을 조성한 단월은 위훈이다. 그는 서형의 시주로 불전이 완성되었으나 불상이 이루어지지 못하자 불상 조성에 나섰던 것이다. 여기서 이찬이 위훈이고, 서형은 김

82) 『三國史記』 권11, 新羅本紀11 景文王 6년 10월, “伊滄允興與弟叔興季興謀逆 事發覺 走岱山郡 王命追捕斬之 夷一族.”

83) 당시 왕비가 통상 夫人 칭호를 사용한 점으로 볼 때 의화부인 역시 왕비로 볼 여지가 있다. 물론 김유신의 처인 智炤夫人처럼 王女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 경우에는 윤흥의 부인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찬의 지위를 가진 윤흥의 부인이 될 수 있는 왕녀를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는 윤흥의 딸로서 왕비가 된 인물로 보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왕비는 문성왕의 元妃 朴氏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책봉 기사에 보이는 박씨는 同姓婚의 혐의를 피하기 위해 칭한 것으로 실제로는 김씨로 판단된다. 헌덕왕의 모후인 聖穆太后에서 같은 사례를 찾을 수 있다.

흔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庶兄은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첩이 낳은 형을 가리키지만, 골품제가 강고했던 신라에서 진골 내부의 결혼이라면 일반적 의미에서의 嫡庶 구분을 생각하기 어렵다.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는 부인의 소생이라면, 그 신분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할 것이므로 伊滄의 庶兄으로 비문에 등장할 여지가 거의 없다.

그렇다면 庶子가 衆子의 의미로도 사용되는 것에 비추어<sup>84)</sup> 庶兄 또한 포괄적인 의미에서 親兄(同母兄) 이외의 친족 형을 가리키는 의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위흔의 중부형 김흔 역시 서형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다.

한편 그가 시주하여 불전을 조성했으나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불상이 제작되지 못한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다. 이것은 둘 사이에 어떤 단절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것은 바로 김흔의 사망이다. 성주사 창건은 문성왕 9년(847) 이후에 시작되었으며, 김흔은 동왕 11년(849)에 사망하였다. 이로 미루어 김흔은 불전의 완성도 보지 못한 채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의 죽음이 김식의 모반에 연루된 것이라고 보면, 그의 사망 후 성주사의 창건은 차질을 빚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심양이 나서서 다시 성주사를 완성하고 불상도 제작했던 것이다.<sup>85)</sup>

4행은 이렇게 해서 제작된 불상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며, 5행은 불상 제작과 더불어 3층의 無垢淨石塔도 건립된 것을 말하고 있다. 현재 성주사지에는 3개의 3층 석탑이 있다.

이어지는 “擬立七祖”는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으나 석탑 다음에 나오고 ‘立’이라는 표현을 썼으므로 역시 탑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보아 현재 성주사지에 있는 5층석탑의 조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七祖’는 金仁問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한다. 무열왕이 낭혜의 8대조이므로 김인문은 그의 7대조가 된다. 성주사지가 김인문의 수봉지로 되어 있으므로 그에 대한 추모를 위해 탑을 따로 건립했다고 볼 수 있다.

84) 무열왕 2년 元子 法敏을 太子로 삼고 庶子 文王과 老且, 仁泰, 智鏡, 愷元에 각기 관등을 수여하였다. 여기서 서자는 원자 法敏을 제외한 나머지 아들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문왕은 무열왕 5년에 中侍가 되었고 문무왕 5년 사망했을 때 왕자의 예로 장례를 치르도록 하였다. 愷元 역시 효소왕 때 上大等에 오르고 있어 이들에 대해 출신의 하자를 생각하기 어렵다.

85) 이희관은 金昕의 지원으로 聖住寺가 창건되었다는 통설적 견해에 대해 金陽이 실질적인 창건 지원자였다고 이해하였다(李喜寬, 「聖住寺와 金陽」 『성주사와 낭혜』, 서경문화사, 2001). 이 문제는 金昕과 金陽의 지원을 연속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상의 내용 검토를 통해 성주사가 김흔의 발원으로 창건되었으나 그가 불전 조성 단계에서 사망하자 위훈(김양)이 이를 이어받아 완성하고 불상과 석탑을 조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주사비」는 바로 이러한 성주사 창건 과정에 초점을 두고 정리된 것인데, 「낭혜화상비」에서 “불상과 전각, 影堂을 개창한 일”을 다루었다고 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을 가리킨다.

한편 비의 2편에는 절의 창건 경위와 별도로 이곳의 역사적 연원 및 이와 연계된 역사의식이 담겨 있어 주목된다.

[2편]

- (1) (上缺) 口遺言 東流於震旦之國 翻貝
- (2) (上缺) 韓鼎足之代 百濟國獻王太子
- (3) (上缺) 推者一七僧 請居此精舍
- (4) (上缺) 者辰韓京邑□所
- (5) (上缺) □寺久聽
- (6) (上缺) 天業

위에서 가장 먼저 주목되는 것은 2행의 “□韓鼎足”이라는 구절이다. 앞에 결락된 글자는 뒤의 鼎足에 비추어 ‘三’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뒤에 百濟國이 나오고 있어 三韓의 鼎足은 곧 삼국 정립기를 가리킨다. 그리고 4행의 辰韓 京邑은 신라 왕경을 가리킨다. 이것은 당시 신라가 三韓 내지 辰韓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한편 獻王은 백제 惠王을 가리키며,<sup>86)</sup> 그 太子는 法王을 말한다. 곧 이곳은 백제 때 창건된 사찰이라는 것이다.<sup>87)</sup> 실제 백제 때 이곳에 사찰을 세웠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성주사비」 건립 당시에 그러한 역사적 연원을 설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를 통해 성주사는 백제 때의 사찰을 거쳐 고구려 공멸 후 김인문에게 내려진 封地, 그리고 무열왕의 후손 김흔과 김양의 성주사 창건 지원과 낭혜의 주석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성은 신라의 辰韓 정체성과 三韓鼎足에 대한 인식과 연결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신라의 ‘一統三韓’을 표상하게 된다. 三韓은 당초 삼국의 역사적 동질성을 표상하는 것이었으며, 신라의 통합 후에는 신라를 가리키는 표현으로도 사용

86) 『三國遺事』 王曆에 獻王으로 나온다.

87) 黃壽永이 인용한 「崇巖山聖住寺事蹟」에는 이 절이 백제 법왕 때 창건된 烏舍寺에서 연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황수영, 앞의 글, 1972, p. 3).

되었다.<sup>88)</sup> 이 때 삼국 정립기를 삼한으로 지칭한다는 것은 곧 삼국으로 나뉘어 있을 때의 사적을 자신의 역사적 경험으로 수용한다는 뜻이 된다. 이러한 인식이 수립되면서 신라는 삼국의 하나로서 자신을 진한에 비정하게 되며, 그 결과로 진한에서 출발하여 삼한을 아우르는 존재가 된다.

이것은 신라에 의한 백제 및 고구려 통합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삼한 일통의식은 신라의 ‘통일’전쟁에 대한 인식으로 올라가게 된다. 신라의 ‘통일’전쟁은 삼한의 정체성을 공유한 삼국을 하나로 합쳤다는 ‘一統三韓’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아울러 성주사 창건의 중심에 있던 김양 사후 그를 무열왕릉에 매장하고 김유신의 예에 준하여 부의를 내리도록 한 것도 ‘일통삼한’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을 내포하고 있다. 이 점에서 성주사 창건은 문성왕대 무열왕계의 복권과 체제 통합의 지향을 바탕으로 삼한일통의식이 출현하게 되는 상황을 직접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sup>89)</sup>

## IV. 맺음 말

이상에서는 신라 신무-문성왕대 무열왕계가 복권되면서 체제 통합의 이념으로서 三韓一統意識이 출현하는 양상을 검토하였다. 이것은 앞서 흥덕왕이 김유신을 흥무대왕으로 추봉하여 통합의 상징으로 활용하려 한 것에서 ‘통일’전쟁의 경험을 정치 이념으로 활용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됨을 반영한다. 여기서 얻어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혜공왕을 끝으로 무열왕계가 단절되고 선덕왕에 이어 원성왕이 즉위하였고, 이후 원성왕의 후손이 왕위를 이어갔다. 하지만 왕위는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하였다. 조카 애장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헌덕왕은 김헌창의 난을 겪었고, 그를 이어 즉위한 흥덕왕은 통합을 위해 노력했지만 그의 사후 왕위계승분쟁이 재개되었다.

흥덕왕의 후계자로는 동생 忠恭이 지명되었으나 그가 먼저 사망하면서 후계 구

88) 윤경진, 「三韓 인식의 연원과 통일전쟁기 新羅의 天下觀」 『東方學志』 167, 2014②.

89) 聖住寺址에는 3개의 3층 석탑이 있다. 신라의 가람 배치는 전통적으로 雙塔이라는 점에서 예외적인 양상이다. 왜 세 개의 3층 석탑을 조성했는지는 현재의 비편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지만, 이것이 혹 ‘一統三韓’을 표상하는 것은 아닌가 한다. 현재로서는 단순한 추정만을 제시하며, 자세한 검토는 추후 과제로 삼는다.

도가 흔들리게 되었다. 흥덕왕 말년에 상대등이 되었던 均貞이 계승권자로 부상하였으나 禮英의 장손인 悌隆(희강왕)이 도전하여 충공의 아들 金明(민애왕)의 지원을 받아 왕위에 올랐다. 김명은 희강왕이 자신의 후계자 지명을 이행하지 않자 난을 일으켜 왕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얼마 후 淸海鎭大使 張保臯의 지원을 받은 균정의 아들 祐徵(신무왕)은 민애왕을 축출하고 왕위에 올랐다.

당시 군대를 이끌고 왕경을 공격한 것은 金陽이었다. 무열왕의 9세손으로 앞서 균정을 지원했던 그는 신무왕의 즉위에 공헌하고 그 뒤를 이은 문성왕대의 정계를 주도하였다. 이는 중앙 정계에서 무열왕계가 복권되는 발판이 되었다.

그런데 당시 무열왕계가 모두 같은 입장에 선 것은 아니었다. 김양의 從父兄 金昕은 김현창 부자의 반란 후 무열왕계를 포용하려는 헌덕왕의 정책에 따라 발탁되어 入唐 宿衛하였고, 민애왕 정권의 수립에도 기여하여 伊滄兼相國에 이르렀다.

그는 왕경을 공격하는 김양에 맞섰으나 대구에서 패배하였다. 신라본기의 전투 기사에 지휘관으로 나오는 大昕은 김흔과 동일인으로 판단된다. 열전에 김흔의 字는 ‘泰’로 되어 있는데, 字를 한 글자로 쓰는 예가 거의 없다는 점을 보면, 그의 이름에 사용한 ‘昕’이 字에서 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泰’와 ‘太’는 같은 의미로 쓰이고 문헌에서 ‘太’와 ‘大’는 통용되므로 결국 김흔이 대흔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김흔은 민애왕 실각 후 소백산에 은거했으나 민애왕 정권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문성왕 11년(849) 민애왕 세력으로 추정되는 金武의 모반에 연루되어 처형되었다. 열전 기사는 김양의 활동으로 무열왕계가 복권되면서 함께 정리된 김흔의 전기에 의거한 것으로, 모반에 관련된 사적을 숨기고 사망 날짜도 모반 직전으로 고쳐 적었다.

신무왕 즉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김양은 문성왕이 즉위한 후 발생한 일련의 모반 사건을 제압하면서 정치와 군사 부문의 실권을 장악해 나갔다. 김양과 함께 신무왕 즉위에 공을 세운 장보고는 딸을 문성왕의 次妃로 들이려다 좌절되자 반란을 일으켰으나 암살되었다.

장보고의 반란은 김양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양은 이후에도 양순과 김식의 모반을 차례로 제압하면서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다. 한편 지방에 근거를 둔 장보고의 반란은 김현창의 난과 마찬가지로 체제 분열의 위기를 재연하는 것이었다. 문성왕이 직접 발원하여 昌林寺無垢淨塔을 세운 것은 불교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국왕 중심의 체제 통합을 희구하는 의미가 있었다. 통합의 지향은 역사의식의 측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문성왕의 행보는 삼한일통의식 출현의 단서를 반영한다.

김양의 정치적 부상은 金周元이 왕위 경쟁에서 밀려나고 金憲昌의 반란이 진압

되면서 퇴락하고 있던 무열왕계의 본격적인 정치적 복권을 의미하였다. 김양 사후 金庾信의 예에 따라 부의를 내리고 무열왕의 능 옆에 배장하도록 한 것은 그러한 그의 위상과 상징성을 잘 보여준다.

김유신은 무열왕의 즉위에 공헌하였고 ‘통일’전쟁의 주역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흥무대왕 추봉으로 통합의 상징으로 부각되었다. 김유신을 전례로 한 예우는 김양의 공업이 김유신에 견줄 만하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不遷之主였음에도 애장왕대 別廟로 이동하고, 김유신의 대왕 추봉으로 상대적으로 그 위상이 하락해 있던 무열왕에 대한 재인식을 유도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무열왕의 공업을 재인식하는 것이 더 이상 현 국왕에 대한 명분적 위협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열왕계와의 정치적 결합을 도모한 결과물이었다.

한편 무열왕의 공업에 대한 재인식은 三韓一統意識의 출현으로 이어졌는데, 金立之가 찬술한 「聖住寺碑」에서 그 일면을 찾을 수 있다. 성주사는 무열왕의 후손인 金昕과 金陽이 단월로 깊이 간여했으며, 그 사적을 담은 「성주사비」는 현존 금석문 중에서 삼한일통의식이 추출되는 첫 사례이다.

성주사는 당초 김흔의 선조인 金仁間이 受封한 곳이며, 김흔의 요청으로 낭해가 주석하며 중창하였고 문성왕이 寺名을 내려주었다. 김양은 김흔의 사망을 계기로 사찰의 창건에 참여하게 되었다. 「성주사비」는 절의 창건 및 지원과 관련된 단월들의 행적이나 창건이 가지는 의미 등이 구체적으로 서술된 사적비로 판단된다.

현재 남아 있는 비편에는 주로 단월의 시주를 통한 성주사의 조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대체적으로 불전을 조성한 데 이어 불상을 제작하고 석탑을 건립하는 상황을 읽을 수 있다. 김흔은 불전 조성을 마치기 전에 사망하였고, 김양이 사업을 이어받아 불상 조성을 포함한 제반 공역을 마무리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또다른 비편에는 절의 창건 경위와 별도로 이곳의 역사적 연원 및 이와 연계된 역사의식이 담겨 있다. 절의 연원으로서 百濟 해왕-법왕 때의 사적을 인용했으며, 당시를 “三韓鼎足”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신라 자신을 辰韓으로 지칭하고 있어 당시 신라가 辰韓에서 출발하여 三韓을 一統했다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성주사비」는 삼한일통의식의 출현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논문투고일 : 7월 6일, 논문심사완료일 : 8월 14일, 논문게재확정일 : 8월 17]

[參考文獻]

1. 자료

- 『三國史記』, 『三國遺事』, 『續日本後記』, 『入唐求法巡禮行記』
- 韓國古代社會研究所 편, 『譯註韓國古代金石文』, 서울,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2. 단행본 및 저서

- 權永五, 『新羅下代 政治史 研究』, 혜안, 2011
- 金昌謙, 『新羅下代 王位繼承 研究』, 景仁文化社, 2003
- 金昌謙, 『新羅下代 王位繼承 研究』, 景仁文化社, 2003
- 노대돈,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9
- 文暉鉉, 『增補新羅史研究』, 慶北大學校 出版部, 2000
- 신라사학회, 『흥무대왕 김유신 연구』, 景仁文化社, 2011
- 李基東, 『新羅社會史研究』, 一潮閣, 1997
- 李基白,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73

3. 논문류

- 姜聲媛, 「新羅下代 反逆의 歷史의 性格」 『韓國史研究』 43, 1983
- 姜在光, 「文聖王代の 政局과 「昌林寺 無垢淨塔願記」 造成의 정치적 배경」 『韓國古代史探究』 7, 2011
- 權永五, 「新羅下代 왕위 계승분쟁과 閔哀王」 『韓國古代史研究』 19, 2000
- 金병남, 「신라의 삼국통일 의식과 그 실제」 『韓國思想과文化』 2, 2004
- 金瑛河, 「新羅의 百濟統合戰爭과 體制變化」 『韓國古代史研究』 16, 1999
- 金영하, 「신라 삼국통일론의 軌跡과 그 함의」 『韓國史研究』 153, 2011
- 金영하, 「一統三韓의 실상과 의식」 『韓國古代史研究』 59, 2010
- 金윤곤, 「新羅의 寺院莊舍: 浮石寺를 중심으로」 『考古歷史學志』 7, 1991
- 金昌謙, 「新羅 下代 王位篡奪型 反逆에 대한 一考察」 『韓國上古史學報』 17, 1994
- 金창검, 「신라시대 金庾信의 興武大王 追封과 ‘新金氏」 『新羅史學報』 18, 2010
- 金昌謙, 「新羅下代 왕위찬탈형 반역에 대한 일고찰」 『韓國上古史學報』 17, 1994

- 노태돈, 「7세기 전쟁의 성격을 둘러싼 논의」 『韓國史研究』 154, 2011
- 盧泰敦, 「三韓에 대한 認識의 變遷」 『韓國史研究』 38, 1982
- 文暉鉉, 「神武王의 등장과 金昕」 『趙恒來停年紀念論叢』 아세아문화사, 1992
- 邊太燮, 「三國統一의 民族史的 意味: ‘一統三韓’意識과 관련하여」 『新羅文化』 2, 1985
- 徐侖希, 「淸海鎮大使 張保臯에 관한 연구: 新羅 王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震檀學報』 92, 2001
- 송은일, 「新羅下代 景文王系の 成立」 『全南史學』 22, 2004
- 吳 星, 「新羅 元聖王系の 王位交替」 『全海宗華甲紀念論叢』, 一潮閣, 1979
- 윤경진, 「『청주운천동사적비』의 건립 시기에 대한 재검토」 『史林』 45, 2013
- 윤경진, 「三韓 인식의 연원과 통일전쟁기 新羅의 天下觀」 『東方學志』 167, 2014
- 윤경진, 「新羅 中代 太宗(武烈王) 諡號의 追上과 재해석」 『韓國史學報』 53, 2013
- 윤경진, 「신라 통일기 금석문에 나타난 天下觀과 歷史意識: 三韓一統意識의 성립 시기 고찰」 『史林』 49, 2014
- 윤경진, 「신라 興德王代 체제 정비와 金庾信 追封: 三韓一統意識 성립의 일 배경」 『史林』 52, 2015
- 尹炳熙, 「新羅下代 均貞系の 王位繼承과 金陽」 『歷史學報』 96, 1982
- 李基東, 「新羅 興德王代의 정치와 사회」 『國史館論叢』 21, 1991
- 李基東, 「新羅下代의 王位繼承과 政治過程」 『歷史學報』 85, 1980
- 李基白, 「上大等考」 『歷史學報』 19, 1962
- 李明植, 「新羅 下代 金周元系の 정치적 입장」 『大丘史學』 26, 1984
- 이영택, 「장보고해상세력에 대한 고찰」 『韓國海洋大學論文集』 14, 1979
- 이호영, 「신라 삼국통일에 관한 재검토: 통일의식을 중심으로」 『史學志』 15, 1981
- 李昊榮, 「新羅의 統一意識과 ‘一統三韓’ 意識의 成長」 『東洋學』 26, 1996
- 李喜寬, 「聖住寺와 金陽: 聖住寺의 經濟的 基盤에 대한 一檢討」 『聖住寺와 朗慧』, 서경문화사, 2001
- 黃壽永, 「金立之撰 新羅聖住寺碑」 『文化財』 4, 1969
- 黃壽永, 「金立之撰 新羅聖住寺碑(續)」 『考古美術』 115, 1972
- 黃壽永, 「金立之撰 新羅聖住寺碑(其三)」 『考古美術』 117, 1973